

# 定慧社

제 14 호  
불기 2541년  
여름 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 고 무 신

한번 깨끗이 닦아도 하루를 못간다.

물로만 닦아서는 안에 있는 묵은 때를 벗겨낼 수 없다.

비누를 쓰고 쭈세미를 써서 정성껏 닦아야 비로소 하얀 빛이 드러난다.

고무신!

하얀거에 들어서면서 법당앞에 놓인 고무신들이 빛을 찾았다. 여지껏 관심이 소홀했었던 고무신 문제가 학감스님의 학인생활지도의 표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여러번 지적했지만 오랜 습관과 인식 부족으로 대충닦는 스님들이 있게 마련이어서 제 빛을 찾는다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각반 소임자스님들이 지도 소홀로 참회를 받았다.

신발 닦는 것.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수행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작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고각하(照顧脚下)!’

항상 자신의 뒤를 돌아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매일 고무신을 닦는 순간 ‘닦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닦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신도들이 하얗게 닦여져 가지런히 놓여 있는 신발을 보면서 신심을 낼 수야있겠지만, 보여지는 것은 수행자와 궁극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울력이 있는 날에는 잘 닦이지 않아 두 번 세 번 쭈세미로 짹짹 문지르면서 내마음의 닦이지 않는 때를 본다.

오늘도 예불시간 법당에 들어서며 신발을 돌아본다.

혹 옆 도반스님보다 덜 닦은 마음을 들킨 듯 싶어서….

오늘도 내일도 송광사 댕돌 위의 고무신은 하얀 빛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 定慧社

## 제 14 호 불기2541년 여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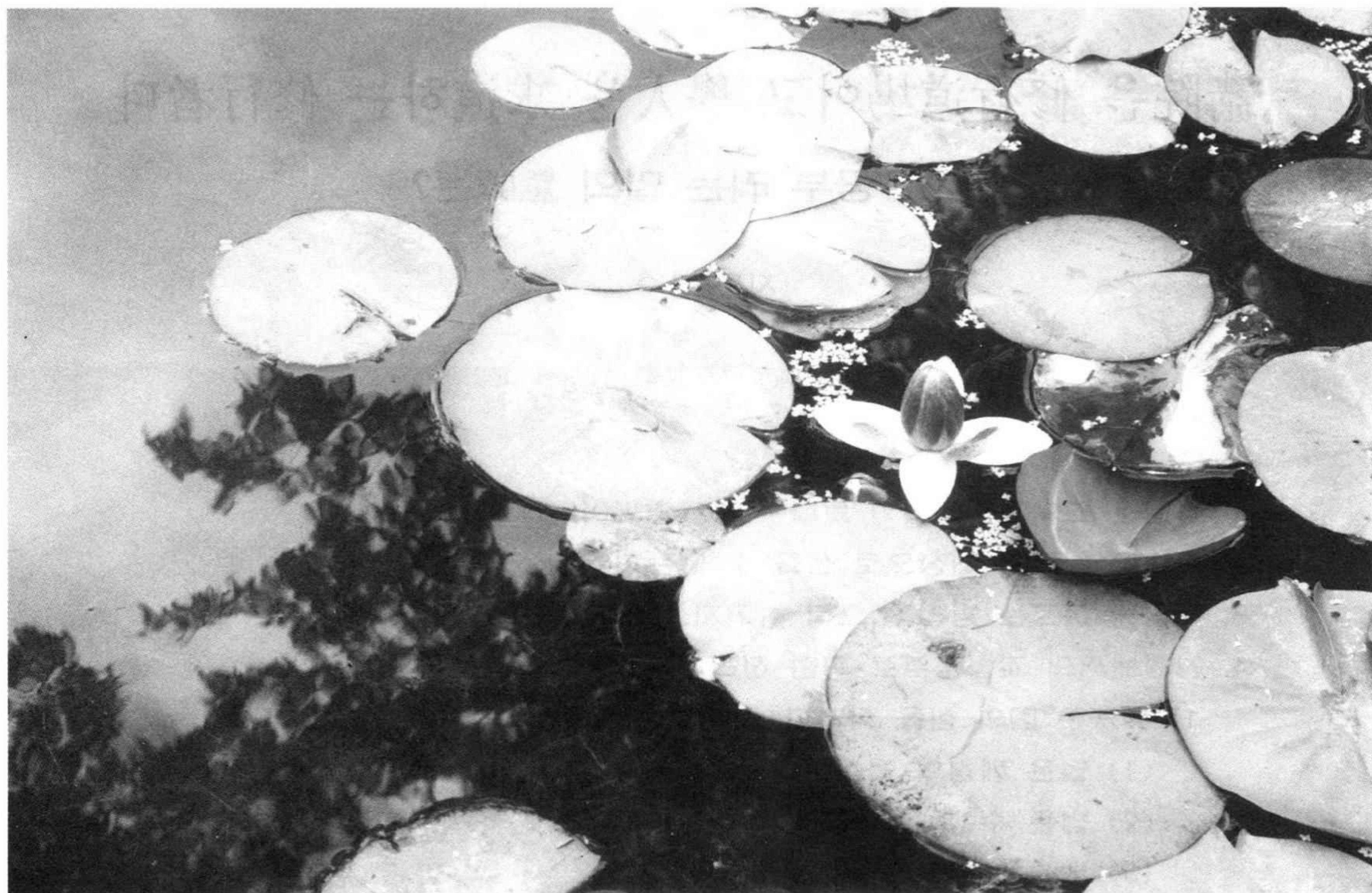
발행처/송광사 강원 · 發行人/智雲(講主) · 편집인/  
도선(입승) · 편집장/연각 · 편집/정원, 월륜, 보각 ·  
사진 삽화/법종 · 발행일/2541년(음) 7월 15일 ·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 755-5300,  
5302 · 인쇄/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 (062) 232-6702

### 차 례



조계의 물소리	고무신	.....	편집부
사진 속의 이야기	2 / 애련설	.....	편집부
기획연재	12 4 /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	지운
화 보	8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편집부
지대방 이야기	12 / 선암사가는길	.....	화진
	14 / 나의 모습	.....	보일
	16 / 삼십대의 군생활	.....	연각
	20 / 중물들이기	.....	보각
	23 / 석류나무	.....	혜전
	24 / 산사의 하루	.....	정원
	26 / 기도하는 생활	.....	기철
특별기획	28 / 송광사강원의 특징	.....	편집부
선다일미	36 / 죽림자로	.....	진중
특별기고	38 / 해로운거도	.....	지묵
원전번역	40 / 화엄법계도	.....	연수
	44 / 42장경	.....	정진
강원기금	46 / 강원발전기금 적립상황	.....	편집부
경전한귀질	47 / 최선을 다하라	.....	편집부
편집후기	48 / 편집후기, 후원안내	.....	편집부





蓮之出於 泥而不染  
濯清漣而不夭

中通外直不蔓不枝  
香遠益清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翫焉

연꽃은 진흙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도 오염하지 않네.

속은 비었으나 겉은 곧고  
넝쿨도 나무도 아니지만  
곧고 바르며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음을 더하네.

멀리서 바라볼수는 있는데  
함부로 희롱할 수 없다네.

글 : 周敦頤(주돈이)의 愛蓮說(애련설) 중에서 발췌  
사진 및 번역 : 편집부

#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2) '공부' 라는 말의 意味는?

지운/강주

###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5) 捨教入禪
    - (6) 信心과 發菩提心
-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 1

인간의 큰 욕망 중에서 오래 살고자하는 욕망을 빼놓을 수는 없다. 궁극에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죽음이란 존재하는 모든 有情

이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학문과 종교가 생기게되고 공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괴로움을 격어보지 않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부란

1) 元曉撰『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四“以不達一法界故 心不相應 忽然念起 名爲無明”《韓國佛教全書》p.1-763上

무엇인가? 먼저 괴로움이란 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의 情的번뇌와 眞理를 모르는데서<sup>1)</sup> 비롯됨을 자각하고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이 모두 因果法則임을 믿는[信心]에서 시작된다.

이 信心이 퇴색하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은 生死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이 바탕이 되며 수행하여 生과 死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發心の 마음도 또한 의욕이 바탕이 된다. 즉 신심과 발심은 하고자하는 欲에 의하여 佛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華嚴經》「入法界品」에 善財童子가 육향장자에게 말하기를,

“聖者여 저는 이미 阿耨多羅三三菩提心を 發하옵고 一切佛의 平等한 智慧를 구하고자하며, 一切佛의 無量한 大願을 채우고자하며, 一切佛의 最上色身を 깨닫기하고자 하며, 一切佛의 淸淨한 法身を 보고자하며, 一切佛의 廣大한 智身を 알고자하며, 一切菩薩의 諸行을 깨닫기 다스리고자하며, 一切菩薩의 三昧를 照明하고자하며, 一切菩薩의 攄持에 安住하고자하며, 一切所有의 障礙를 滅除하고자하며, 一切十方世界에 遊行하고자하나 보살이 어떻게 菩薩行을 배우고 어떻게 菩薩道를 닦아서 능히 一切智의 智를 出生할 수 있는



지 알지 못하나이다.”<sup>2)</sup>

라고 하였다. 一切智는 聲聞, 緣覺, 佛에 통하지만 여기에서는 성문과 연각의 一切智와 구별하기 위하여 一切智의 智라고 하였다. 따라서 一切智智는 佛智慧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一切智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처의 지위에 이르러야만 나타나는 智慧이다. 發心하고서 계속 수행할 의욕이 없다면 一切智智인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하고자할 欲은 신심과 발심이 계속 되도록 하는 수행자 마음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할 때는 괴로움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쾌락에 탐착하여 신심과 발심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의욕이 약할 때 교법을 배우는 것은 신심과 발심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비록 의욕을 일으켰더라도 신심을 증장시키고

2) “聖者 我已先發阿耨多羅三三菩提心 欲求一切佛平等智慧 欲滿一切佛無量大願 欲淨一切佛最上色身 欲見一切佛淸淨法身 欲知一切佛廣大智身 欲淨治一切菩薩諸行 欲照明一切菩薩三昧 欲安住一切菩薩攄持 欲除滅一切所有障礙 欲遊行一切十方世界 而未知菩薩 云何學菩薩行 云何修菩薩道 而能出生一切智智” (高麗藏經 木版本 80華嚴經卷第67 四幅前)



발심을 지속시켜서 깨닫게 하는 수행체제가 없다면 공부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강원의 수행체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敎法에 대한 공부와 그 공부를 체험하기 위한 戒·定·慧 三學의 실천 수행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강원의 공부는 知識에서 智慧로의 전환체제로 되어 있다.<sup>3)</sup> 이론과 실천이 二分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학위주라고 할수도 없고 실천수행뿐이라 얘기할 수도 없지만 깨침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교학이란 깨침을 위한 방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을 사용하여 깨침을 이루려는 공부가 강원체제의 기둥이며, 이런 체제를 갖추고 신심으로 수행하여 발심이 지속

되도록 하기 때문에 교학위주의 교육 차원의 공부와는 구별이 된다.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강원의 공부는 不二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로 자신과 세계를 분리시키며 人性和 환경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無知로부터 초심자를 보호하는 체제라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信心과 發心이 지속되도록 하는 수행체제로서의 강원은 '하고자할 欲'을 向上시키는 역할을 하는 場이 된다. 따라서 오늘날 강원을 대학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지만 공부와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는 대학체제와는 구별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

## 2

공부하고자 하는 欲은 五別境心所의 하나이다. 오별경심소는 唯識家에서 세운 六位心所의 하나로 別別的 境界를 緣하여 所生한 欲(梵語 chanda)·勝解·念·定·慧의 五種心所를 말한다. 이 五別境心所는 廻光返照하는 수행의 心所인데 이 五種心所는 善·惡·無記 三性和 三界九地에 통하여 일어나며 마음이 즐거워할 바를 緣할 때에 일어나는 심리작용을 欲心所라고 한다.<sup>4)</sup> 즉 괴로움을 여의고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 즐거움이란 뜻으로 여기에서 欲은 《盲龜經》에서,

3) 知識에서 智慧로의 전환은 轉識得智이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반야지혜를 말한다.

4) 百法問答 卷一



“비구여 四聖諦의 공부가 前後 剎那에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 자는 마땅히 방편을 부지런히 익혀 向上하고자 하는[增上欲] 마음을 내서 사성제의 공부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sup>5)</sup>

라고 하였듯이 수행할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苦聖諦]을 여의고 열반의 깨달음[滅聖諦]에 이르고자 할 때에 이 欲의 心所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해 나갈 수 없는데 경지의 깊은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욕의 작용이 첫 출발이 된다.

사실 “工夫[功夫]”라는 單語는 禪家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禪家の 특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특수성이란 “不立文字 教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내부로 廻光返照하여 깨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부의 의미는 文字를 근거하지 않는 修行을 의미하는데, 《大慧書》 卷上에서는,

“이 마음은 비록 한 생각도 퇴굴한 적이 없으나 工夫가 종내 순일하지 못함을 自覺하였다.”<sup>6)</sup>

라고 하여 체험의 정도나 경지를 나타내는 한편, 수행, 수행의 과정, 수행의 내용, 수행의 체험, 수행의 효과 등을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진리의 直接 體驗을 “工夫”라 할 수 있는데 직접체험은 ‘몸으로 익혀서 드러나는

것’ 또는 ‘몸에 익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즉 修行과 工夫는 같은 의미로써 공부란 수행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공부라는 단어가 꼭 禪宗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문자의 벽을 넘어서서 존재의 본질을 깨는 불교의 수행은 곧 모두다 공부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八正道, 六波羅蜜, 十波羅蜜, 三十七助道品 등 戒·定·慧 三學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수행덕목을 따라 실행하는 것 등이 모두 공부에 해당된다.

물론 불교수행은 成佛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見性成佛이란 인간의 참 모습의 회복이며 대자유를 획득하여 인간이 해탈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가 되는 공부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공부라는 말속에 본래 품을 들이고 공을 들여 노력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학문을 배우려 노력하는 것을 공부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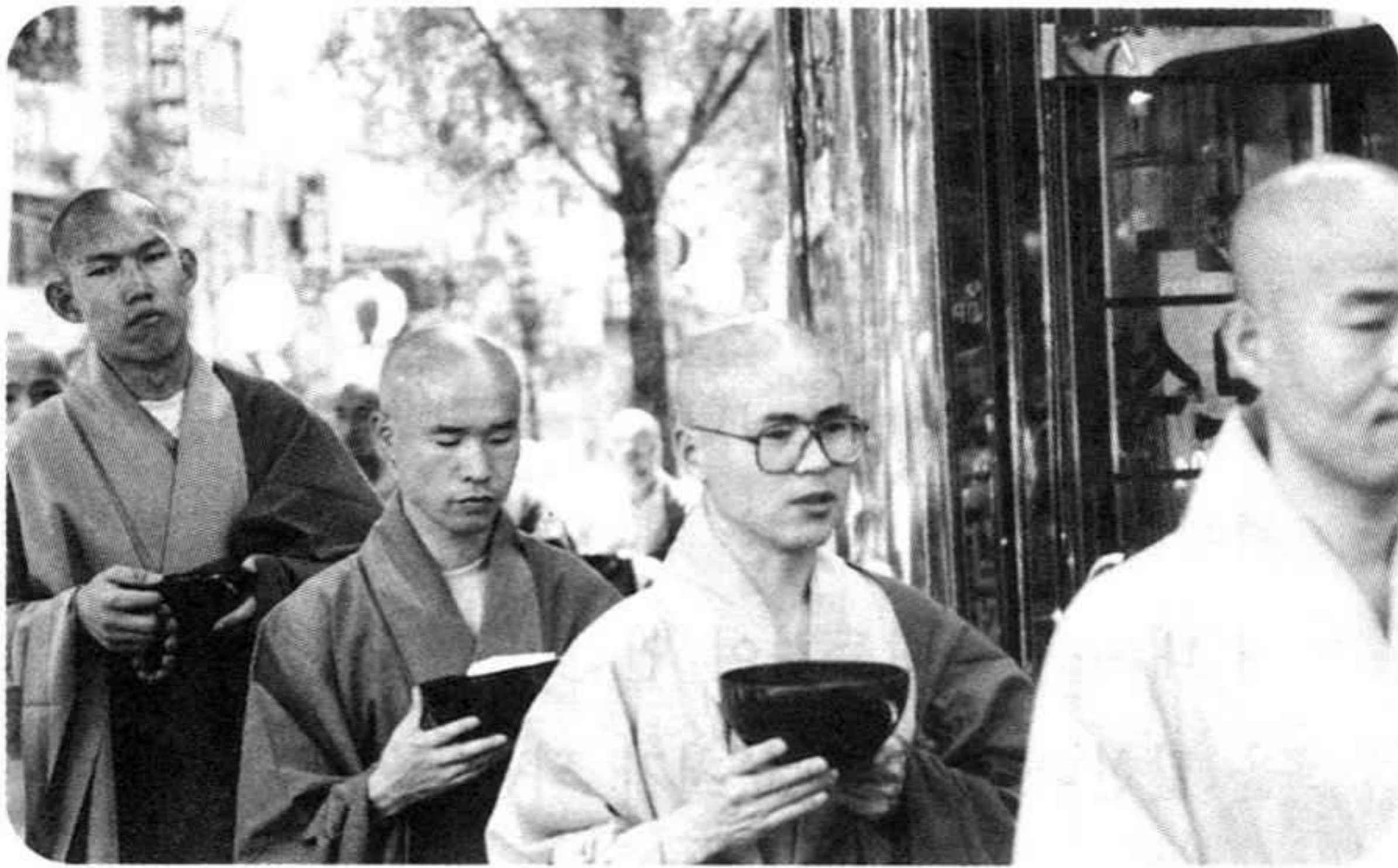


5) 《雜阿含經》卷第15, 405 “比丘! 於四聖諦當未無間等者, 當勤方便, 起增上欲, 學無間等” [註]無間等은 等無間을 말한다.

6) “此心雖未嘗一念退屈 自覺工夫終未純一” 大正藏47卷 p.916中

# 학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5월6일-북한동포를 위한 자비의 탁발  
분산철을 마치며 실시한 자비의 탁발이 강주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이번 탁발은 지남번과는 달리 두 팀으로 나누어 대인시장과 양동시장에서 했으며, 탁발에서 모아진 137여만원과 착인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50여만원은 전승건을 통해 북한동포돕기 성금으로 위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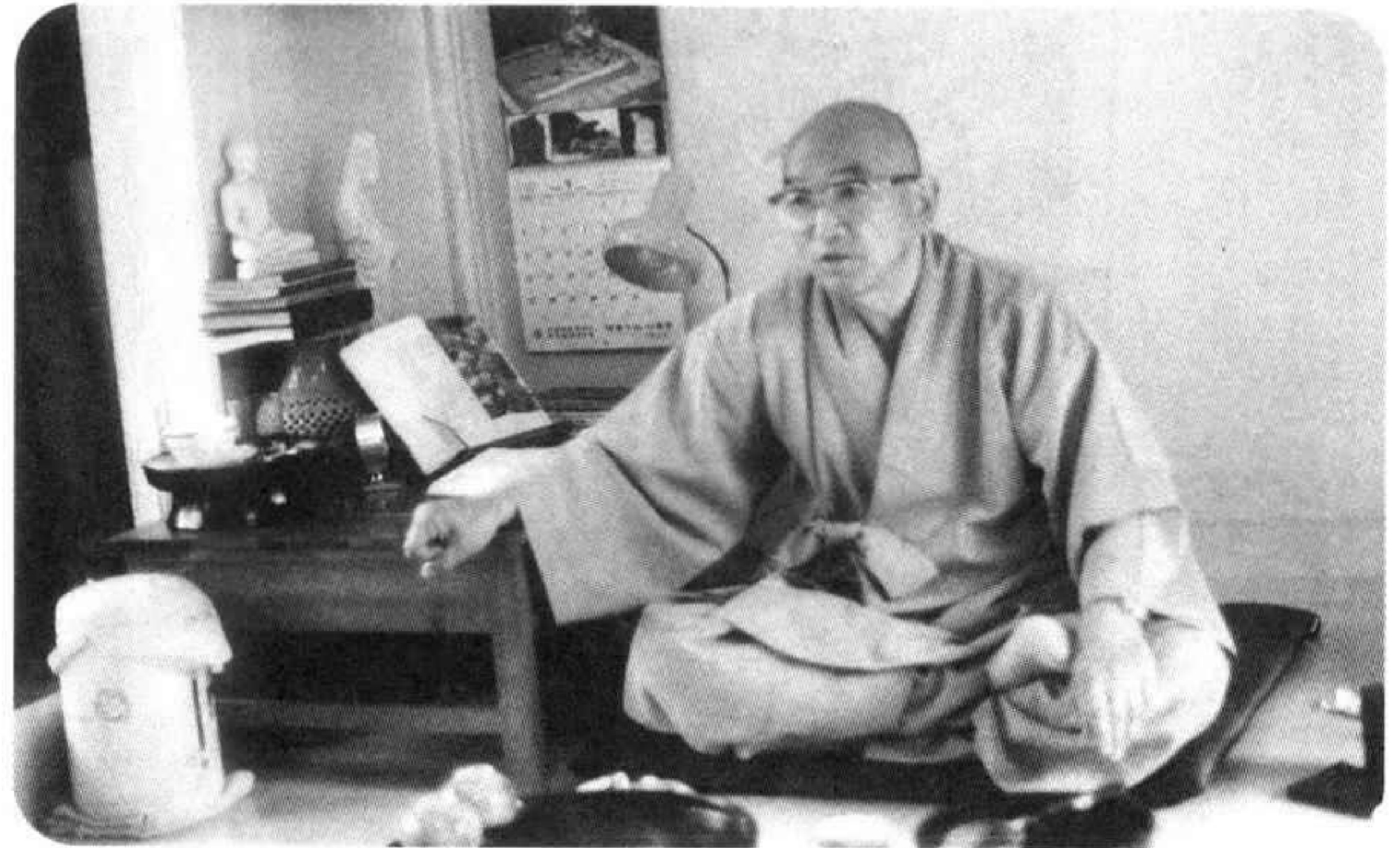
5월18일~20일-하안거 무장무애기도 입재  
하안거를 앞두고 석달간 정진에 장애가 없기를 기원하는 참회기도를 큰방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안거의 경우 큰방을 정혜사로 옮기게 되려 아울러 착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송광사 강원엔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더욱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5월21일-新정혜결사 결의에 따른 고불식  
사중의 어른 스님들과 강주, 학감 및 강사 스님들을 모신 가운데 정혜사 큰방에서 송광사강원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정혜결사 결의문을 채택하는 고불식을 가졌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정진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강원을 이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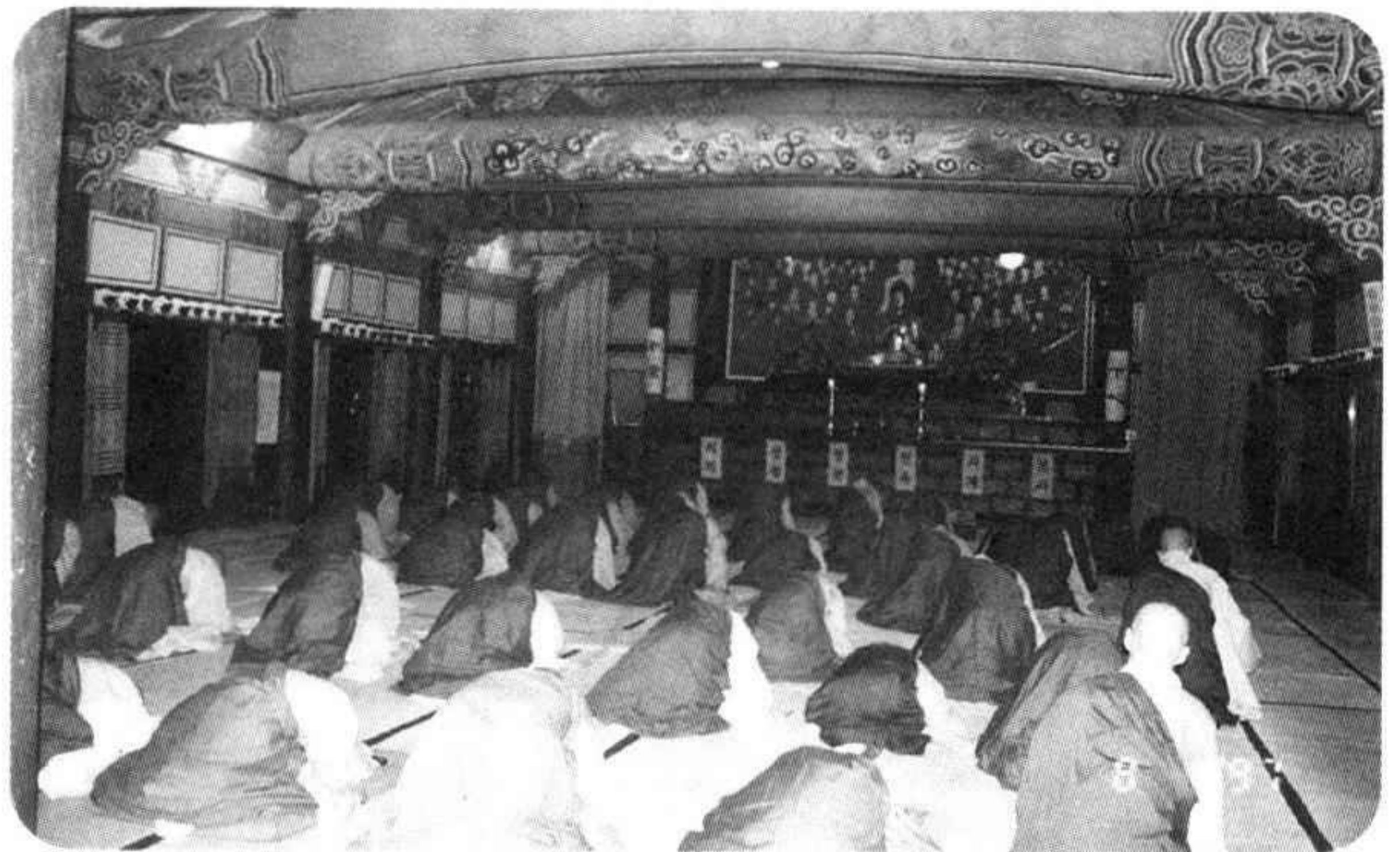
### 6월1일-동당(법흥)스님 법문

매월 갖기로 한 어른 스님께 듣는 법문의 첫 시간을 동당스님(법흥스님)께서 해주셨다. 이번 법문은 해청당에서 전학인이 참석할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초심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옛어른스님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사진자료를 미비로 스님을 친견하던 모습을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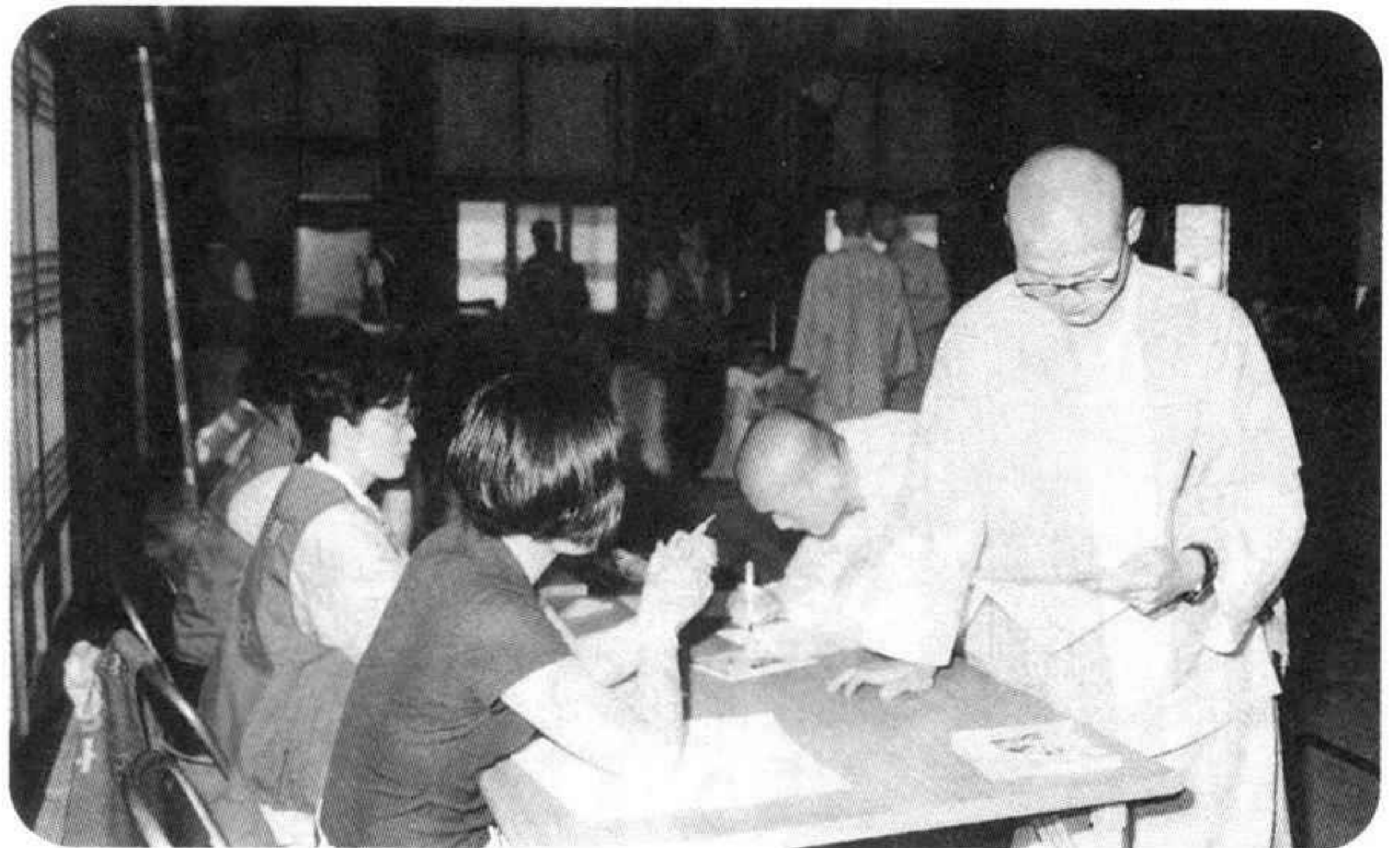
### 6월3일-참회 및 포살

新정혜결사에 따라 삭발일마다 하는 대참회가 처음으로 정혜사 큰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예불 후 전학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참회는 보름마다 실시되며, 아울러 보름마다 실시되는 포살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 6월6일-감로심장회 검진

진주의 감로심장회 의류진이 송광사를 방문 선원 및 강원을 비롯 사중스님들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공부에 바빠서 미처 돌보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스님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진 및 치료를 해준으로써 스님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월12일-회광당 일각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 사시마지후 큰 법당에서 전 방장스님 회광당 대종사의 1주기 추모법회가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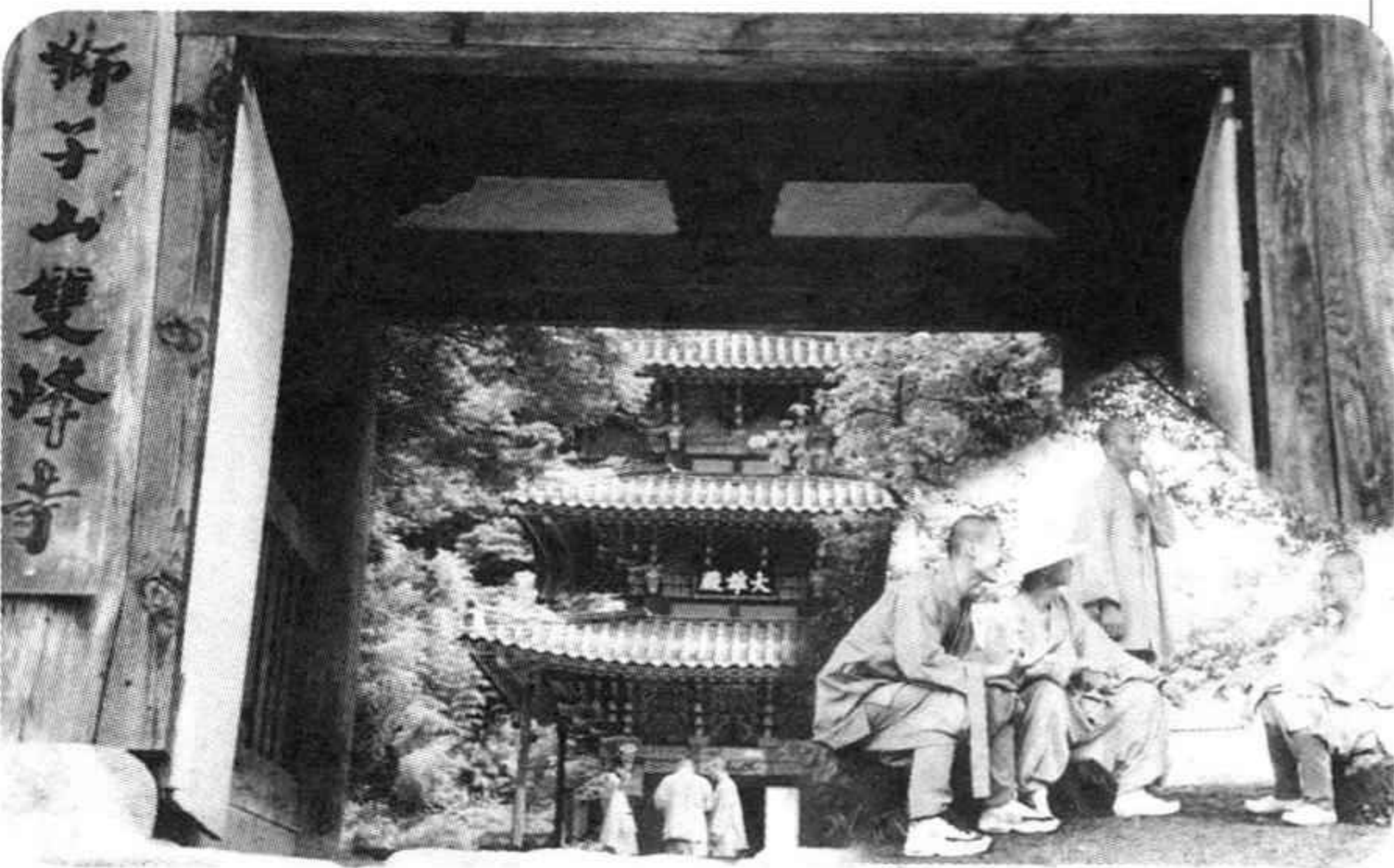
6월 18일-길상사 점안식 참석

서울 송광사 포교당으로 문을 열게된 길상사의 부처님 점안식과 개원기원 백일기도 입재식에 착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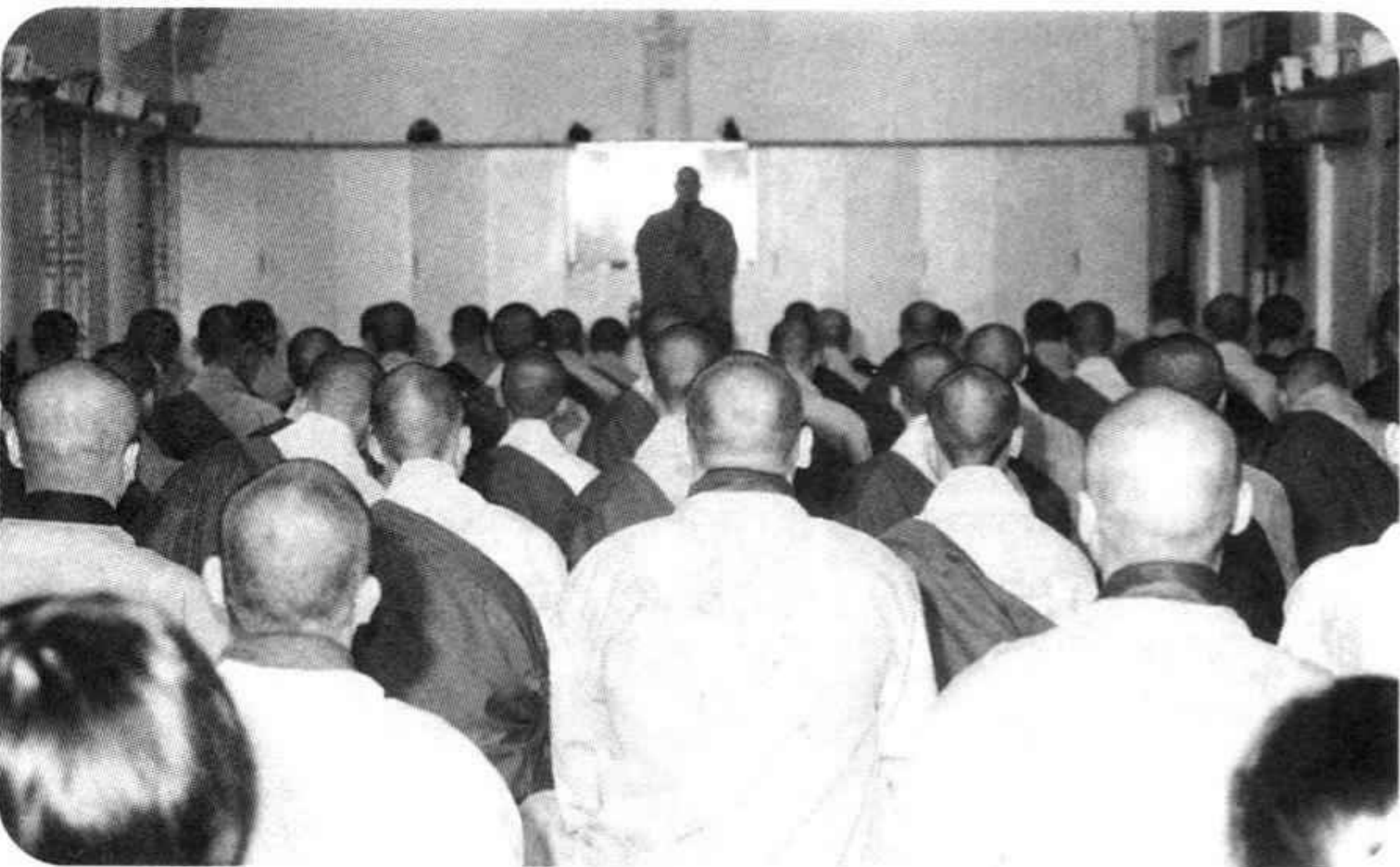
7월3일~4일-티벳불교 특강

현장(대원사주지)스님을 모시고 정혜사 큰방에서 티벳불교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습니다. 저녁예불을 마친후 상영된 슬라이드는 스님이 직접 티벳을 순례하며 제작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셔서 티벳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7월7일-반결재 소풍

반결재를 맞아 모후산과 쌍봉사 등을 돌아 보았습니다. 모후산은 송광사가 위치한 조계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 직접 등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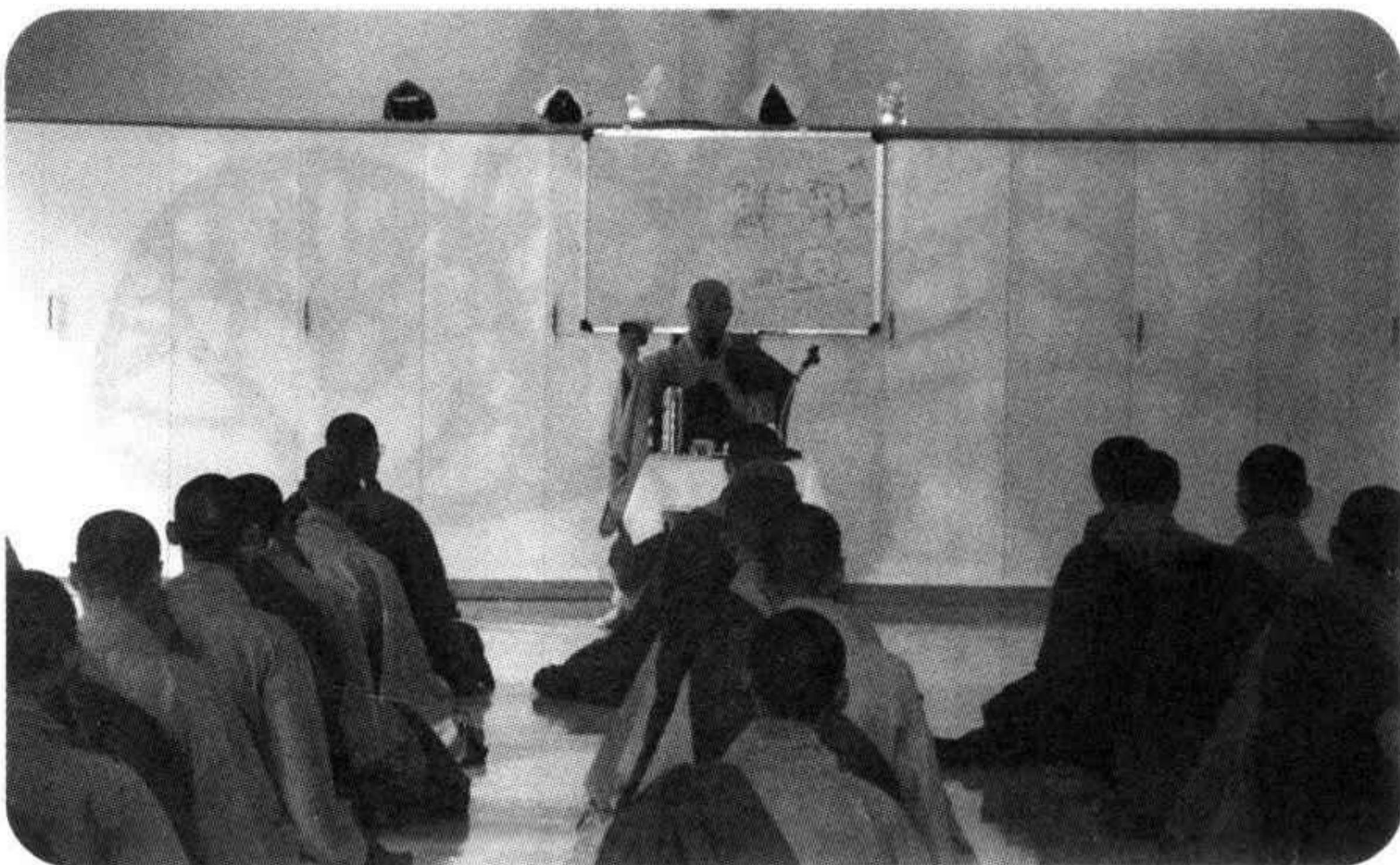


7월8일-원명스님 법문

하얏거 들어 어른스님 초청법문 두 번째 시간을 원명(대구 관음사주지)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송광사에 얽힌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송광사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옛스님들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7월16일-5.18묘역 희생자 천도식**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주지모임(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모임)에서 마련한 5.18민주영령 천도식이 광주 5.18묘역에서 오후 6시에 있었습니다. 몇일전부터 내리던 비도 행사 시간에는 잠시 차아주었습니다. 이 행사에 강원착인들도 함께 아픈 영령들과 함께 했습니다.



**7월24일-강주스님 특강(간경)**  
 강원생활의 핵심인 간경에 대한 강주스님의 특강이 정혜사 큰방에서 전착인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간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간경수행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간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이번 특강자료는 본호 특별기획간에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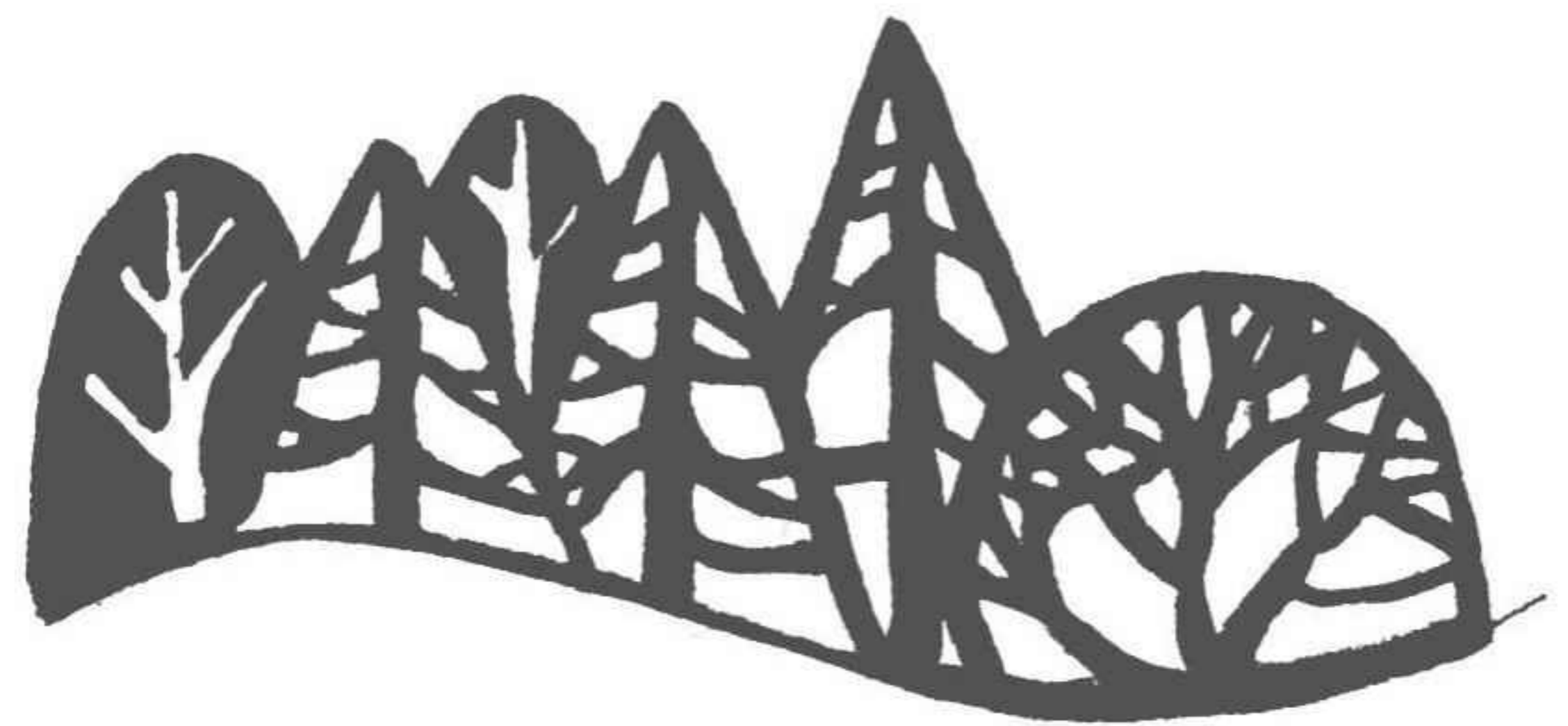
**7월29일-일철스님특강**  
 미국에서 10여년간 수행해오다 귀국하신 일철스님을 모시고 미국에서의 경험과 수행생활에 대한 스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수행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6일~9일-하안거 번역시험 및 법문답**  
 6일 정혜사 큰방에서 치문반·사집반·사교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한 가운데 하안거를 마감하며 그 동안의 공부를 점검하는 번역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에 걸쳐 강사스님과의 법문답이 각반별로 치러졌습니다.

# 선암사 가는 길

화진(華眞)/치문



송광사 강원에 입방하여 처음 맞이하는 꿀맛같은 6박7일간의 봄 산철 방학을 마치고 전반기 방학을 나갔던 도반들과 반가운 해후를 하였다. 비록 치문반에 방부 들인 지 얼마되지 않고 6박7일간의 짧은 방학이었지만 다시 만난 도반들과는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아 오롯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든 치문반 생활을 같이하는 끈끈한 도반애 덕택에 더욱 반가웠으리라. 방학동안의 강원생활은 의외로 여유로웠다. 삼시 예불과 발우 공양시간의

는 자유시간이어서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만의 자유시간을 누릴 계획에 스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송광사에서 선암사로 산행!’ 산행의 날짜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날로 정했다. 드디어 산행 하는 날 오전에 경내에 설치되었던 설치물들을 사중스님, 처사님들과 함께 철거한 다음 사시 공양을 마치고 선암사로 출발하였다. 7명의 스님들이 도란도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조계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지성스님과 혜연스님은 빠른 발을 자랑하듯 멀치감치 앞서 갔고, 우리는 녹음 우거진 숲길과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뒤따랐다. 조계산 계곡이 의외로 맑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산이 높거나 험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계곡은 매우 아름다웠다. 힘든 숨을 내쉬며 한 시간 가량 걸려 굴목재에 도착하였고 조계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잠시 감상하며 휴식을 취한 후 아래에 있는 휴게소로 향했다.

출발전 계획에는 이곳에서

보리밥과 감자전을 먹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시공양도 조금만 하고 출발했었는데, 앞서 도착한 스님들이 그냥 가자고 한다.

‘아니 이럴수가!’

내가 속으로 한탄하고 있을 때 한 스님이 용감하게 배고파서 못 가겠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 스님들은 선암사로 내려가서 먹자며 그냥 가잖나. 할 수 없이 물만 한 바가지 마시고 출발하였다. 선암사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완만하게 계속 이어져 있었다. 선암사의 모습이 멀리 운곽이 나타날 즈음, 문득 대학시 절의 동아리 M.T생각이 떠올랐다. 그 때도 지금의 치문반과 같이 일학년이었는데 겨울 방학 M.T를 선배들과 더불어 송광사에서 선암사로 산행을 했었다. 그때는 겨울이었기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조계산을 거의 기다시피하여 넘었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이어서, 당시의 송광사, 선암사, 조계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이 길을 삭발한 모습으로



지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알수가 없는 일이구나! 싶었다.

드디어 목적지인 선암사 도착.

이곳은 송광사와 더불어 조계산 내의 양대 사찰로 잘 알려진 절이다. 비록 종단은 다르나 우리 반에 선암사에서 유학온 한 스님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 절이었다.

선암사는 잘 짜여진 정원, 고풍스러운 건물들, 일주문 입구의 차밭, 강선루를 끼고 도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계곡과 길가의 장승, 포장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흙길, 진입로 등등 고풍스러운 멋이 아주 잘 남아 있는 절이었다. 선암사 참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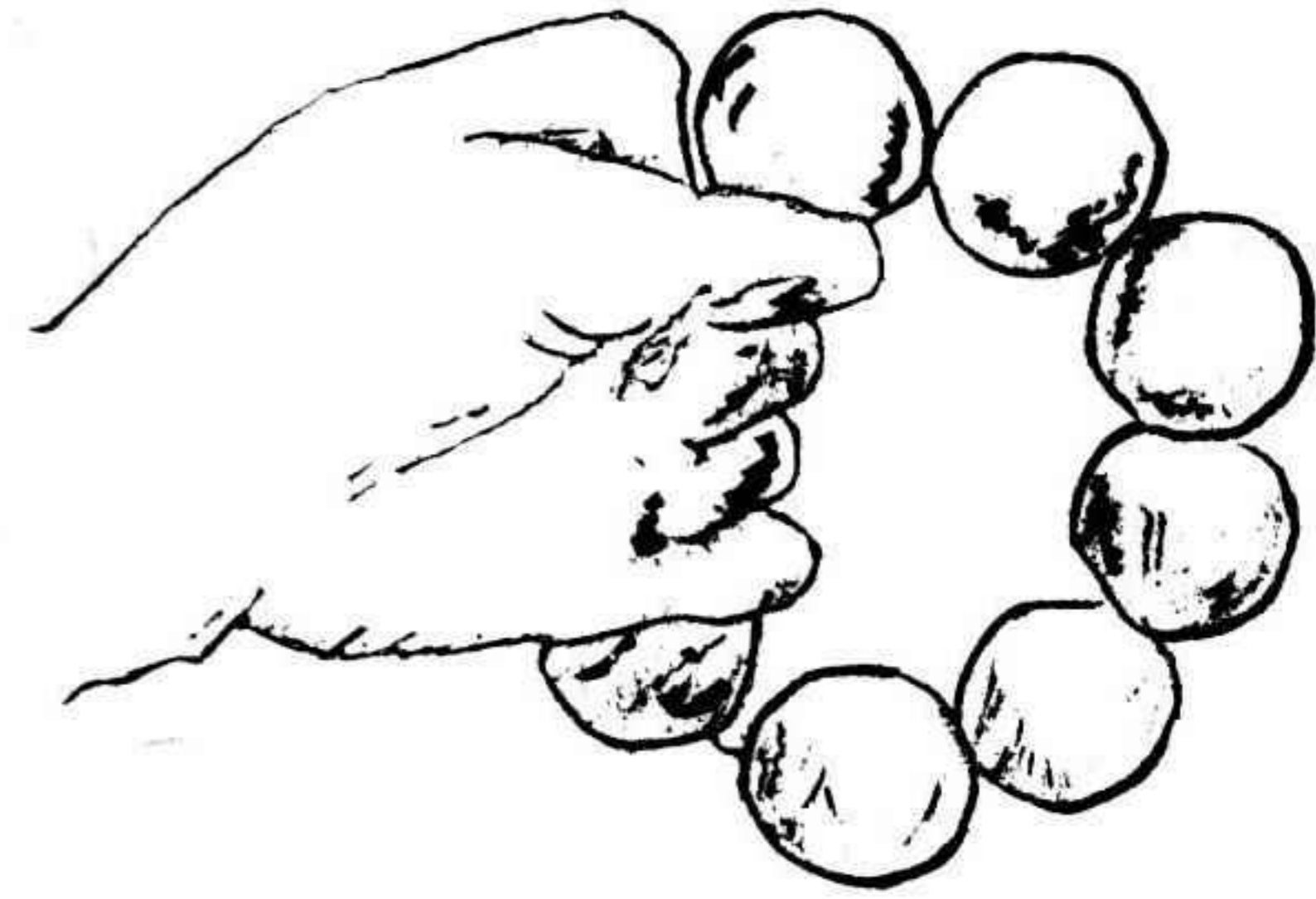
마치고 절 입구 식당에서, 산행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도반 스님들과 만나절 이나마 같이 땀을 흘리며 산행하고 돌아오니 한 발짝 더 가까이 도반 스님들이 다가온 것 같다. 같은 반 스님들은 평생 도반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 여러 선배 스님들의 말이 있듯이, 이번 산행으로 우리 스님들의 정이 돈독히 굳어 졌고 10년 20년후 다시 모였을 때 이번 산행이 아주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리라 믿어 진다.

항상 좋은 도반들에 감사하고, 서로 좋은 도반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리라.

치문반 화이팅!

# 나의 모습



보일(寶日)/사집

여름 안거 반결재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공부한 것이 없다.

사집반에 올라가면 시간의 여유가 많으니 여러 가지 경전과 관련서적을 많이 읽으라는 윗반 스님과 강사스님의 말씀에, 많이 부족한 불교 기본개념의 정리와 함께 아함경만큼은 체계적인 계획아래 틈틈히 공부하리라 다짐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성에 차지를 않는다. 오히려 생활에 해태심만는 듯하고 가끔은 공부 못한 것을 외적인 일에다 되돌려 자신을 합리화 하려는

옆에서 누가 보기라도 하면 평소 잘 하던 예불문이나 반야심경까지도 다 잊어 버리고, 목탁을 어떻게 내리는 지도 모른 채 예불을 드리다 보면 식은 땀이 흘러내려 속 옷을 흠뻑 적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못된 망상만 만들어 낸다. 그리고, 처음 맡은 부전소임(승보전)은, 행자때부터 목탁이나 염불습의를 제대로 못해 본 나로서는, 목탁을 치거나 요령을 흔들 때 그렇게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옆에서 누가 보기라도 하면 평소 잘 하던 예불문이나 반야심경까지도 다 잊어 버리고, 목탁을 어떻게 내리는 지도 모른 채 예불을 드리다 보면 식은 땀이 흘러내려 속 옷을 흠뻑 적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사시마지 때에는 요령을 요령 있게 흔들지 못하여 중간에 순서



가 뒤바뀌기도 하면서 보름을 지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숙하다.

이번 철에는 염불가운데에서도 사시마지나 관음시식 정도는 꼭 순서라도 외우겠다고 다짐했었지만 해태심으로 거의 하지 못하였다. 치문반 때의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매사에 의욕이 없고 짜증만 나서 강당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지던 사이 도반 스님 한 분이 강당을 그만두었고, 한 분은 휴학을 하였다.

때로는 정겹고 때로는 냉정하다시피 한 강당생활.

수행집단이고 자신의 공부는 자신이 하며 주위의 다른 모든 것을 스승삼아 수행해야 한다고 들 하지만, 나 자신 수행이 짧고 부족해서 그럴까? 이런 저런 주변의 변화에 심적동요가 심한 것을 보면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출가할 때의 마음은 어딜갔을까?

‘부초심지인(夫初心之人)은 수원리악우(須遠離惡友)하고…….’

초발심자경문을 크게 외워 보기도 하고, 금강경, 반야심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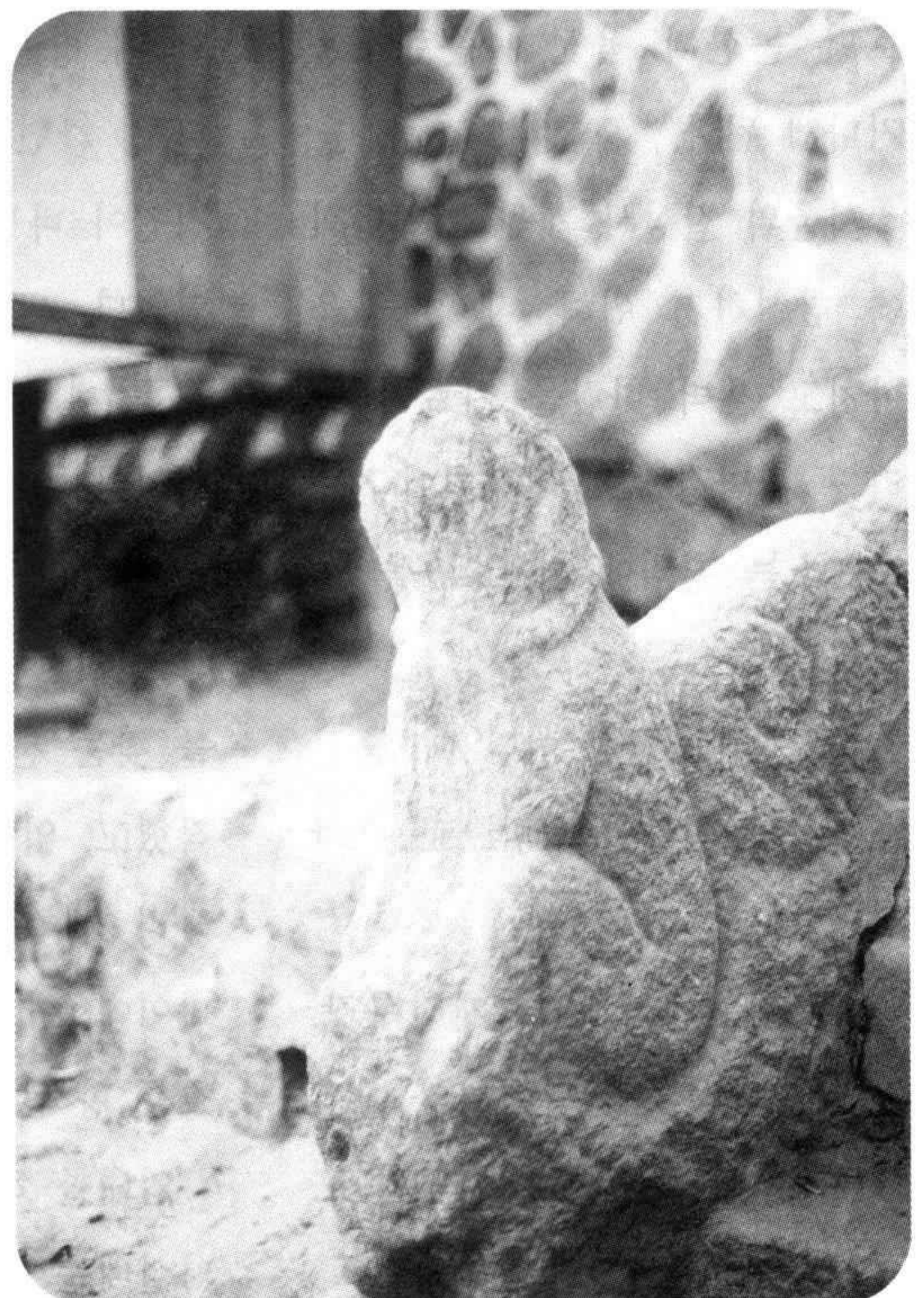
생각나는대로 크게 소리내어 독송하여 초발심을 다시 일깨우려 노력도 하지만, 생활의 무기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치문반 스님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경반스님들의 다소 여유있어 보이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럽게 보이는 걸까. 사집반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든 장애가 많다는 얘기에 조금은 수궁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려고 출가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옛 스님들은 이 몸뚱이가 없다 여

기고 공부하셨다고들 하던데…….

어찌보면 너무 모든게 편안해서 오는 상대적 괴리감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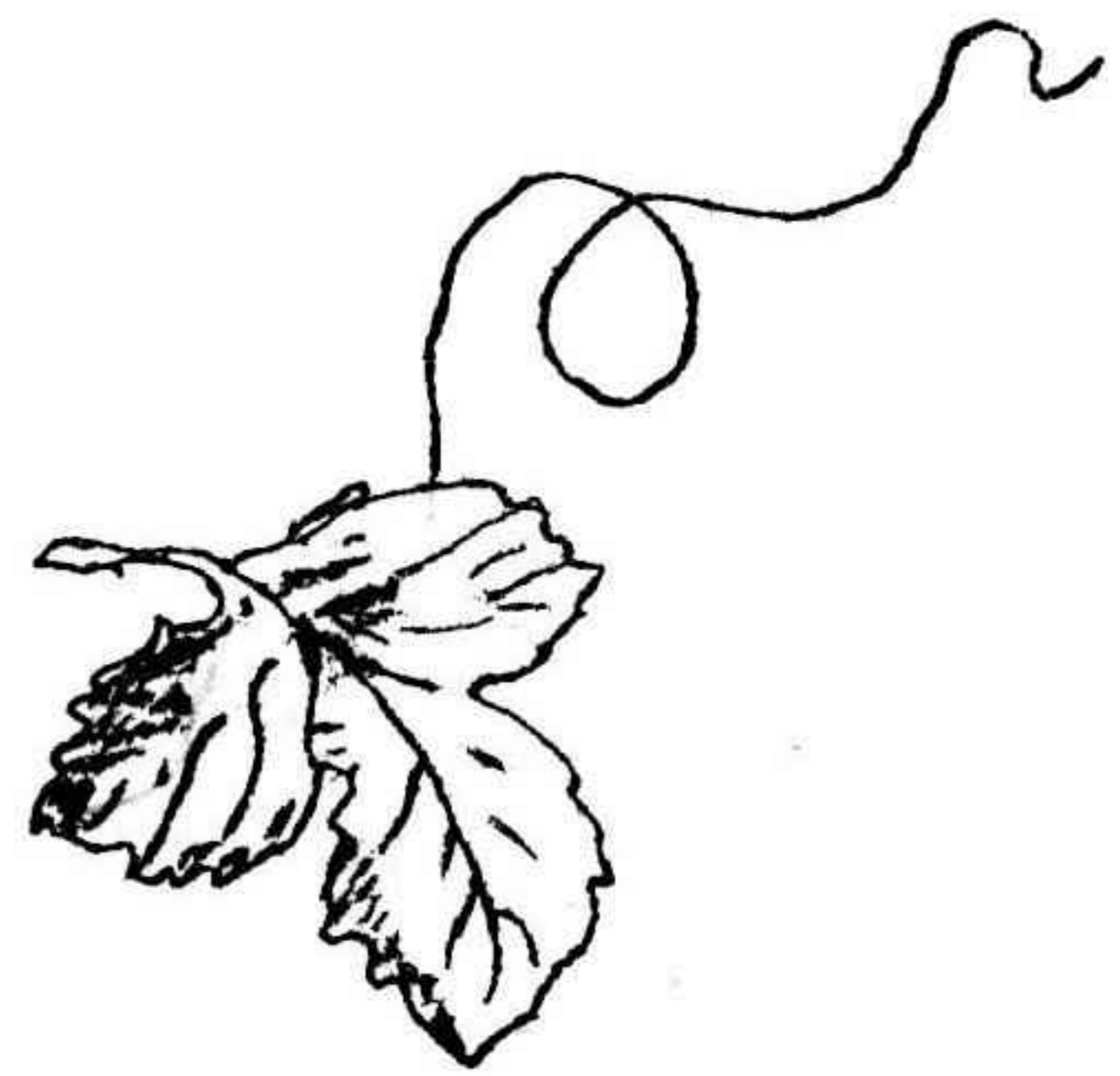
‘나는 어디서와서 어디로 가는걸까?’

라는 기본적 명제위에 나의 해태심을 떨구고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위에 초심을 새롭게 하여 강당생활을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 30대의 군생활

연각(然覺) / 사교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논산의 육군제2훈련소를 지나게 된다.

서울의 길상사 개원 기원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예불을 마치고 새벽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새벽길에도 어김없이 제2훈련소는 창밖에 제 모습을 들어냈다.

지금부터 5년전 이맘 때, 훈련소에서의 생활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다.

사격장, 유격장, 각개전투장, 그리고 막사와 법당에서의 어색했던 한 나이 많은 훈련병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하다.

출가하려고 직장생활을 마감할 때 병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던 인사담당관의 말은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어 있었다. 새 정권은 병역특혜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했기 때문이었다.

사표가 수리되고 출가한지 채 4개월이 되기도 전 행자실로 나를 찾는 전화가 빈번해 지기 시작했고, 얽히고 얽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서 설혼의 나이에 행자복을 입고 제2훈련소를 향해야만 했었다.

입대를 하루 앞두고 송광사를 나설때는 오히려 담담했다. 하지

만 출가의 뜻을 비쳤을 때 한 사코 만류하며, 혹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건 아닌지 차책하던 속가의 형님이 멀리 포항에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찾아와서는, 할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잘 다녀오라' 하며 눈가에 이슬을 드리울 때는, 내가 처해있는 문제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함이 밀려왔었다.

하지만 나로인해 많은 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면서, 이 순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그저 그렇게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설마 이 나이에 군에 가는데 3년을 다 채우고 나오게 되겠느냐’며, 서로 한가닥 희망의 지푸라기를 잡고 안심하려 노력했었다.

‘탄원서를 써서라도 꼭 빨리 제대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눈물을 감추던 형님을 뒤로 하고, 입소대의 문을 들어설 때는 다시 불안감이 밀려 들고 있었다. 하지만 입소대에서의 신체 검사 역시 사정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기인 만큼 아무런 걸림 없이 통과되어 버렸다.

마음으로 용납할 수는 없었지만,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날이 초과일 전날이었기에 초과일은 입소대에서 보내고(법당은 없고, 강당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이라며, 과자와 음료수가 특식으로 나왔었다. 이것이 군의 종교 현실이구나 싶었다.) 이틀후 훈련소에 입소했다.

거의 열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훈련병들과 함께 받았던 훈련.

법당은 없고, 강당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이라며, 과자와 음료수가 특식으로 나왔었다. 이것이 군의 종교 현실….

사실 나이 먹고 군에 입대하면 이미 한물간 퇴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티가 나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젊은 사람에게 뒤지지 않고 똑같이 훈련받기 위해 노력했었다.

사격도, 각개전투도, 유격도 마지막 행군까지 열외되지 않고 그들 속에 파묻혀 훈련을 받았다.

어차피 받을 훈련이라고 포기한 뒤라서, 오히려 견딜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훈련장에서 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면 항상 호남고속도로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신나게 달리는 고속버스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 버스를 타 볼까!’

그 속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제일 길게 느껴진 4주의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연병장에서 퇴소식을 하던 날.

면회온 가족과 부등켜 안고 눈물을 펄펄 흘리는 이등병들의 모습을 볼 때만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친지들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쪽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으며, 빨리 제대할 수 있도록 손 쓰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내가 위로해야 했었다.

‘어쩌다 이런 자리에 와 있는가?’

생각하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대학에서 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시작한지 7년째, 예비군도 다 끝나가는 무렵에 다시 군에 입대해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사회제도의 불공평함을 느껴야만 했고, 제도 앞에 나아하기만 한 개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던 날.

그래도 나이가 많은 것이 참 작되었는지 군중병과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배치된 부대에는 병당은 없었다. 교회 뿐이었고 그나마 교회에 군중병이 돌썩이나 있어 군중병이 남아 도는 부대였다.

따라서, 또 한번 병과가 바뀌어야만 했고, 나이가 많다해서 누구도 달갑게 여기지않았기에 인사과에서 다른 신병들보다 일주일 이상을 대기해야만 했다.

겨우 행정병 보직이 주어졌으나, 자대를 배치 받고도, 각 중대 인사계들이 골치 아픈 녀석이 왔다면 한사코 마다하는 바람에 또 일주일을 대대 인사과

에서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보내야 했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권력자가 예고 없이 휘두른 사정의 칼날이 아프게 마음에 파고 들었고, '전생에 빚진 업보가 두텁기도 하구나' 싶었다.

일주일이 넘어갈 무렵, 다행히 몇번 대대 인사과를 드나들던 2중대 선임하사가 매일 부동자세로 한 쪽 구석에 앉아 있는 나이먹은 신병이 불쌍했던지 중대 짚차에 더불백을 실어주었고, 그날부터 자대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디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끝이 있으랴!

이제는 다 접어들 때인 것 같다.

사실 나이 어린 고참병, 간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느꼈던 서운함을 어찌 나로 인해 그들이 느껴야 했던 불편함에야 비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군이지만, 사회통념상의 나이, 이에 따른 인정과 군조직 질서유지를 위한 위계질서 사이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나이 많은 병사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그것도 열 살 썩이나 차이가 났으니...

중대 전체의 분위기를 생각해 서라도 결코 환영받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다해도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었다.

나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늘 생각했었다.

내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하였다.

쫄병때는 내가 고참이라면, 고참이 되어서는 내가 쫄병이라면,

내게 서운하게 하고 때로는 계급을 떠나 좀 무례하다 싶을 때도 항상 내 입장은 접어두려 노력했었다.

도반스님들이나 윗, 아랫반 스님들을 대할 때, 내 나이로 기준을 삼는 경우는 없다. 항상 어느때든 그 상황속에서의 질서만이 기준이 될 뿐이다.(다만 아랫반의 나이 많은 스님들로 나의 군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다.)

그것만이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을 넘는 최선의 방법이요,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귀동량한 부처님 말씀들을 통해, 그런대로 쉽게 상황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을 지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군생활도 끝낸지 2년이 넘어섰다.

당시의 병영생활의 경험은 나에게 나이를 잊게 만들어 놓았다.

도반스님들이나 윗, 아랫반 스님들을 대할 때, 내 나이로 기준을 삼는 경우는 없다. 항상 어느때든 그 상황속에서의 질서만이 기준이 될 뿐이다.(다만 아랫반의 나이 많은 스님들로 나의 군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다.)

하지만 당시 2년여의 군생활에는 마음속에 항상 개운치 못

한 양금이 함께 했음도 묵과할 수 없다.

'꼭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느낌.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어색함이 항상 떠나지를 앓았었다.

내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써 나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결코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생각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곤 했었다.

이제 출가한지 3년째, 물론 군 생활과 승가의 대중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 내 자신으로 인해 대중을 뇌고롭게 하는 경우는 없는 지, 버스 창가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논산 제2훈련소의 기억위에 물음표를 찍어 본다.



# 중물들이기

보각(普覺) / 치문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강원에 입방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열심히 수행하다보니 하안거도 반이 지났다. 아직은 모든 면에서 미숙하지만 윗반 스님들의 지도로 하나하나 익혀 나가고 있다.

강원에서는 경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물 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중물이란 수행자로서의 위의(威儀)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살림살이다. 이는, 건물의 기초와 같아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수 있듯이, 중물이 잘 들어야만 계속

되는 어려운 수행을 견디고 마침내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어른 스님들은 말씀하신다.

강당의 모든 생활이 공부와 수행이 아닌 것이 없지만 크게 예불, 간경, 공양, 울력, 소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데, 나는 예불을 통해서 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고, 간경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공양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의 수행을 되돌아 보고, 울력을 통해 시주의 은혜를 되새기고, 소임을 통해 대중생활을 배우고 있다.

예불시간은 출가 수행자의 가

장 기본적인 것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수행의 목표를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다. 새벽예불이 시작되기 전 108배를 하고, 예불시간에는 큰 소리로 예경하는데 잠도 달아나고 신심이 더욱 증장된다.

하지만, 요즘 예불시간은 나를 매우 어렵게 한다. 새벽에는 모기, 사시와 저녁예불은 더위 때문에 마음을 외부에 많이 빼앗기고 있다. 법당에 앉자마자 모기들의 날아다니는 소리, 물릴 때의 따가움, 물리고 난 다음의 가려움 등이 나의 마음을 흩어 놓는다. 흩어지는 마음을 관(觀)

하러 노력을 하지만 마음은 어느새 모기의 움직임에 따라 가고 있다. 더위도 마찬가지로 나를 어렵게 한다.

원호스님께서서는 자경문에서, “절하는 무릎이 얼음같이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행에만 전념하라는 말씀이리라. 오늘도 모기와 더위를 스승 삼아 공부하면서 예불을 드린다.

공양시간은 왼손잡이인 나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다. 공양의 의미를 관하면서 임해야 하는 짧은(?) 공양시간에 오른손으로 공양해야하는 불편함이 더해져 긴장하고 산만하게 만든다. 출가하기 전에 공양을 천천히 하는 습관이 든 나에게 공양시간은 만만치가 않다. 국에다 반찬을 같이 넣고 씹는 등 마는 등 넘겨 버리고 젓갈질도 미숙하니 수저만 사용하고, 바루 닦는 시간도 다른 스님들보다 오래 걸리니 3분자 발우(반찬)는 사용할 생각을 않는다. 가끔 3분자 발우를 사용하는 데 닦는 것을 잊어서 당황한 경우도 있었다.



새벽에는 모기, 사시와 저녁 예불은 더위 때문에 마음을 외부에 많이 빼앗기고 있다. 법당에 앉자마자 모기들의 날아다니는 소리, 물릴 때의 따가움, 물리고 난 다음의 가려움 등이 나의 마음을 흩어 놓는다. 흩어지는 마음을 관(觀)하려 노력을 하지만 마음은 어느새 모기의 움직임을 따라 가고 있다. 원호스님께서서는 자경문에서

“절하는 무릎이 얼음같이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행에만 전념하라는 말씀이리라. 오늘도 모기와 더위를 스승 삼아 공부하면서 예불을 드린다.

공양할 때 몸이 바쁘니 마음도 따라 허둥거리고, 공양하는 나를 관(觀)하려고 하는 데, 노력만큼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른손 사용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으니 차차 나아지겠지!

한번은, 죽비소리에 맞춰 바루를 펴다가 크게 당황한 일이 있었다. 발건(발우닦는 행주)이 없는 것이었다.(빨아 놓고, 공양하려 갈 때 가져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일에 생각을 놓쳐 그냥 들어간 것이다). 순간, 공양을 끝내고 발우를 닦을 일이 난감하였다. 발우를 펴면서 계속 발우를 뒤로 닦나 하는 생각만 하다 마침 발우를 닦는 수건을 보고는 마음을 놓았었다. 만약, 그것마저 없었다면 공양후

발우를 어떻게 닦았을 지 난감하기만 하다.

간경은 강원의 핵심이라서, 시간도 가장 많이 할당된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고, 아직 한문이 익숙하지 않아 강의 받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 간경시간에 독경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독경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후간경은 3시간으로 50분 간경후 10분을 쉬는 데, 간경시간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는 스님들이 계신다. 나도 따라해보니, 2시간까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3시간째는 다리가 아파서 자세를 자주 바꾸면서 힘들게 간경시간을 마쳤다.

그 스님들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리라.

울력은 시주자의 보시로 수행을 하는 나에게 잊어버리기 쉬운 땀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시간이다. 울력을 하면 생각으로만 시주의 은혜를 헤아리던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소임 또한 대중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한다. 각자가 소임을 충실히 해야 대중의 화합을 깨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치문'에서도, 각 소임자는 대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보고, 대중은 소임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항상 수행자임을 잊지 않으려

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생각을 놓으면 몸은 습대로 따라가고 만다. 그래서, 습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리라. 윗반 스님들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아 좋은 습은 들이고 잘못된 습은 안들이도록 하다보면 강당을 졸업할 때가 되면 저절로 수행자로서의 중물이 들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삼보의 하나인 승보가 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라!

강당에서 수행자다운 습의를 익혀서 출가의 목적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하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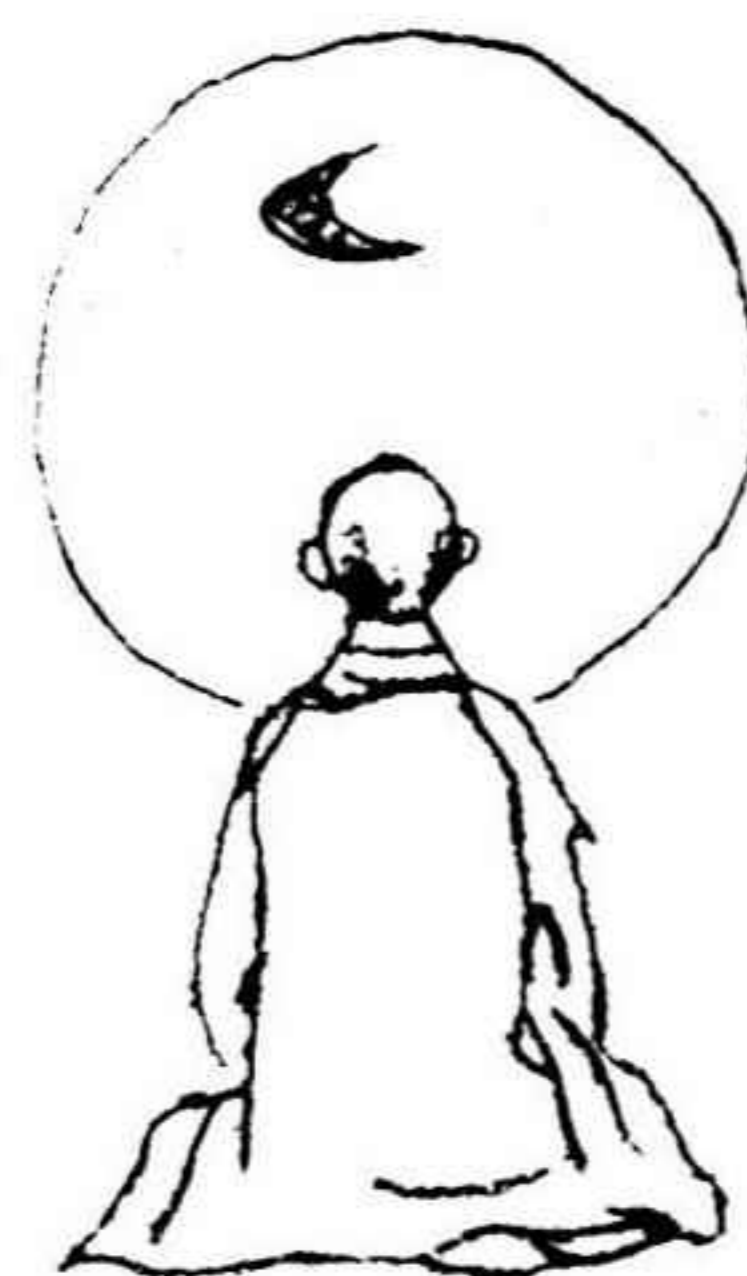
울력은 시주자의 보시로 수행을 하는 나에게 잊어버리기 쉬운 땀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시간이다. 울력을 하면 생각으로만 시주의 은혜를 헤아리던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 석류나무

혜전(慧田) / 치문



요즘 저녁예불 전에 안행(雁行)을 하다 보면 눈길에 밟는 곳이 있다.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꽃들이 푸른 나뭇잎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석류 나무.

국제선원 앞에 서 있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다. 여름! 지금 경내에는 온갖 종류의 화초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화사하게 피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왜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석류 나무에 나의 눈길이 밟는 것일까?

숙가의 집에도 석류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선친께서 집을 새로 지으시고 화단을 조성하실 때, 사철 나무와 석류 나무를 한 그루씩 심으셨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했다.

몇년이 지난 후 어느 여름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뒤에야 나는 그 나무가 석류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해

는 꽃봉오리들이 거의 다 떨어져 서너 개의 열매만을 얻을 수 있었다. 가을에 잘 익은 석류를 온 가족이 나누어 먹은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4월, 모든 생명들이 약동하는 계절이었지만 아버님에게는 낙화의 계절이었다. 그 해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던 날, 나는 마루에 앉아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도 매년 열매가 맺혔으나, 나의 기억속에는 떨어진 석류꽃 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확은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올 여름은 장마가 길 것이라 한다. 올 해는 얼마나 많은 꽃봉오리가 낙화될까?

여러 해 동안의 방황후 출가

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까지, 기억의 저편에 묻혀있던 것들이 막상 펜을 들자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특히, 아버지! 얼마 전 우연히 지대방에 굴러 다니는 신문에서 소설 '아버지'가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광고를 보았다. 최근에 꼭 한번 읽어 보고 싶었던 소설이었기에 눈에 잘 띄었나 보다.

신문에 난 광고 한 쪽을 보기도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보면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어린 날 나의 철없던 반항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 때문이리라.

아버지께서 저 세상으로 가신 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 와서 더욱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야 철이 나는 것일까?

# 산사의 하루



정원(正圓)/사집

산사의 하루는 새벽 3시,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도량석 목탁소리로 깊은 잠을 깨우며 시작된다. 대웅보전 중앙에서 울림 목탁으로 시작된 도량석은 승보전을 돌고, 도성당 앞을 지나 임경당, 종무소를 거쳐, 사천왕상을 한바퀴 돌고서는, 법성료를 지나고 큰방인 정혜사를 지나, 선열당을 휘돌아 다시 처음 출발했던 대웅보전으로 향한다.

입을 밝히는 진언으로 시작된 천수경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마치고 사방찬, 도량찬에 이어 준제진언쯤 하게 되면 종성 담당하는 스님으로부터 신호가 온다. 그러면, 마지막 구절인 귀명례삼보로 도량석을 마치게 되고 이어서 새벽종성이 시작된다.

종성이 끝나면 운판, 목어, 법고를 치고 천상(天上)에까지 법음을 전하는 대종이 긴 여운과 함께 온 세계로 울려 퍼진다.

댕-댕 .....

울려 퍼지는 장엄한 그 소리는 나의 귀를 맑히고 번뇌를 끊게 하고 지혜를 자라게 한다.

이어서, 대웅전에서 새벽예불을 하며 큰방에 돌아와서는 간경(看經)을 한다.

역대 조사스님들은 한결같이 사랑분별하지 말고, 시비하지 않으며, 마냥 쉬고 쉬라고 하신다. 그렇지만, 여러 대종스님들이 함께 모여 살다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내 생각과 다른 스님의 생각의 차이에 분별을 내고, 나의 행

동과 다른 것에 시비를 하고, 진심을 내며 짜증을 낼 때가 많다. 이것은 아직도 내가 수행이 미약하고 대자비심이 부족한 것이라 여기며 내 자신을 질책하고 참회를 한다. 자꾸자꾸 내 마음을 거두는 작업을 하면서 내 자신을 회광반조한다.

“나를 낳아 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끌어 주는 이는 붕우”라고 하였는데, 정말 나를 질책해 줄 수 있는 좋은 도반스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부처님도 좋은 도반을 얻는다는 것은 법 전체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진 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거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

지만 수시로 습윤함이 있고, 악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쁜 지견(知見)만 더하여 아침, 저녁으로 악을 지어 목전에서 과보를 받고, 죽은 뒤에는 고힘(苦海)에서 침륜하게 된다고 하니 어찌 경계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내 주위에 있는 도반스님들은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이 분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부처님 법을 알고 있고 수행하는데도 열심이다.

나는 도반스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들을 때마다 안개에 휩싸여 있는 나의 머리가 한 겹풀썩 벗겨져 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 분들의 묵묵한 정진을 보면서 내 자신의 나태함을 질책하고 대분심을 낸다.

강의 받고, 간경하고,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는 산사(山寺)의 하루는 조금은 짝 짜인 듯한 생활로 보이지만, 이것은 나의 게으름을 이겨내게 하고 수행자(修行者)로서의 살아가야 할 습을 익히게 하는 곳이다.

매일 아침 법당을 향하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기 위

함이고,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며, 계율을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행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이나 된 것처럼 무겁고 힘들 때에는 오늘 하루는 예불을 설까하는 생각을 냈다가도,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전 6년간이나 고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의 색신하나 간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평생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법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는다.

이렇게,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나면 몸이 한결 나아짐을 느낄 때가 많다.

나는 출가하여 정말 많은 사

실들을 배우고 있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다면, 내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이 세계에 와서 여타의 사람들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정말 두렵다. 내가 부처님 품안에 들어온 것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성불하는 그 날까지 세세생생 부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살길 바라며 내 주위에서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법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

자타일시 성불도요, 일체중생 개공성불도 하기를 빌며…….



# 기도하는 생활



기철(奇徹) / 치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윗글의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학교 때 교회에 나가서 배운 부흥 찬송가의 일부분이다. 타 종교의 찬송가지만 이곡의 가사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우리 절집안의 정서와 전혀 상반되지 않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느낌이다. ‘기도’란 것이 어느 특정 종교단체의 전유물이거나 한 시대의 몇몇 선각자들이 만들어 낸것도 아니고, 또 그 추종자들만이 해온 것도 아니어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간에 기도하는 방법이나 부수적인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등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짐작된다. 다만, 서두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상기해낸 것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일종의 과외활동으로, 교회에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노래 부르고 사귀을 가진 것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고 지금 절집안에 들어와서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많이 하는 기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당시는 어렸고 특별한 종교관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단지 친구와 어울려서 노래부르는 일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었다.

사실, 종교보다는 서클 활동이 주가 되었었다. 요즘에는 우리 불교도 시내 곳곳에 포교당이 많이 들어서 불교를 접하는 계층도 다양해지고 특히, 유치원부터 중고등 법회까지 불법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었다. 사실 어린 학

생들이 불법을 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참으로 소중한 인연인데 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양하는 찬불가를 부르니, 자연 불심도 커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처럼(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시간을 내어 차분히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절집안에서는 신도들의 기도가 성행되어 왔다. 할머니이나 어머니들의 기도는 지극한 정성으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비는 것이었다. 당신 자신은 돌보지 않고 희생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비록 그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이타심의 발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코 부정

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잊고 일념으로 부처님께 다른이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불교의 자비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리라.

우선은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 된다면 자기 자신도 안정이 되고 마음에 사심이 없어져서 좀더 큰 눈으로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가 좋고 나쁘다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작은 기도부터 시작함이 옳다고 본다.

어떤 강한 욕심없이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는 기분으로 겸손하게 자기자신을 돌아보면서 꾸준히 묵묵히 하는 것이다. 장소에는 구애 받을 필요없이 법당에 갈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차분하게

기도하여, 기도가 일상이 되고 생활 그 자체가 되면 더욱 좋리라.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 하루 일을 설계하고 반성하는 것도 좋은 기도일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많은 욕심을 비우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를 한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나요'를 떠올리며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되고자 한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송광사 강원의 특성

정리 : 편집부

본 원고는 지난 7월24일 정혜사 큰방에서 있었던 강주스님의 특강내용으로 강주스님의 지도를 받아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講院은 僧伽 속의 작은 승가로서 모든 불교의 전반적인 틀을 세우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승가가 사라진데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승가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불교의 활성화와 조계종 宗旨에 가장 알맞는 禪的 教科目을 갖추고 있고 禪風 振作의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강원이다. 강원의 布薩과 上講禮, 講義問答, 看經, 論講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성이 있다. 곧 佛法의 쇠퇴를 막는 동시에 正法을 구현하고 발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般泥洹經》卷上에서는 법의 쇠퇴를 막기 위한 가르침 가운데

“자주 모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며 외는 데 게을리하지 않음

이다.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바르게 가르치며 돕는 일이다. 법의 뜻을 지켜 여러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을 공경함이니 뜻을 道에 두고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음이다. 배움을 공경함이니, 戒 지키는 이를 섬기고 다른데 의지하지 않음이다. 듣는 것을 공경함이니 법을 강의하는 이를 섬기고 다른 데 의지하지 않음이다.”<sup>1)</sup>

라고 설하고 있다. 이 경전에서는 강원체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강원의 체제는 실천적 실행이 필수적이며, 보름마다 포살을 통해 계율을 지키게 하고 대중을 화합하게 하며, 禮佛, 講義, 問答, 論講, 看經, 懺悔 등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승가를 유지 존속하게 하는 기초를 다짐과 함께 定과 慧를 닦는 제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간경과 논강은 경전의 뜻을 강론하는 것이고, 상강

1) 大正藏 第一卷 P.176 中下

례는 공경을 표하는 것인데 강원의 강의, 간경, 논강, 상강례 등이 모두 법의 쇠퇴를 막고 오래도록 존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법의 활성화라 말할 수 있는데, 법은 정과 혜를 일으키며 觀心이나 看話하게 하는 힘이 되고, 법에 대한 체험은 믿음과 발심이 생기게 하며, 佛法種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한다.

강원의 특성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와 생활이 不二의 수행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 있다. 공부와 생활이 일치되므로 공부가 그대로 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 체제는 知識에서 智慧로 가는 길이요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場이 된다. 그러므로 지식을 습득하여 지혜로 전환해 나가는 實踐修行場으로서의 역할이 강원의 특성이며, 공부와 생활이 二分化되어 있어 믿음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체제와는 달리 강원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부와 생활이 일치되는 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체제와는 구별되는 승가 고유의 체제를 가

지고 있는 강원의 특성이다. 하지만 강원마다 각각 다른 환경 조건으로 인한 특성이 있게 마련이며, 송광사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그 특성이 구분된다.



### 첫째, 포살을 행하여 화합한다.

포살을 통하여 계율을 지키게 한다. 계율은 승가의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승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계율이 바로 설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사이버 승려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포살은 화합을 위한 체계이고 승가공동체의 발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며 본인에게는 수행자임을 재확인 하게 하는 場이 되므로 강원의 포살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는 전승가의 질서와 승풍을 일으키고 수행의 기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송광사 강원의 경우 결제철에는 반드시 포살을 행하고 있다.

### 둘째, 강의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하는 자와 강의받는 자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법의 성격이 평등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平等一性의 모습은 끊어짐(斷)도 항상함(常)도 없는 無始無終이며, 無限無量이다.

상호관계가 수평적이어야만 법이 상호간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며, 강사 자신의 내면과 학인의 내면으로 회광반조가 일어나서, 법은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가 問答式이어야 하는 이유는, 법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법에 대한 문장이해력과 언어전달능력이 월등히 좋아지고 지혜의 계발이 용이해

지며, 문답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 되는데, 주입식의 경우는 일방적, 차별적, 수직적인 강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평적 문답이야말로 법의 平等一性에 가장 맞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수평적 문답에 의하여 법에 대한 문답이 오고 가면, 문답하는 당사자의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언어문자의 사슬이 끊어지고, 무지와 미몽의 고정관념이 파괴되어 대자유가 성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唯識에서 설하듯이, 교법을 들으면 正聞熏習種子가 생겨서 유루종자가 무루종자로 전환되어 깨침의 길이 열리게 되어 강의하는 자도 지식이 지혜로 전환되어 깨침이 오고 강의를 듣는 자도 지혜가 열리면서 깨침이 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의하는 자는 자신이 강의한 법문을 자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정문훈습종자가 생기게 되며, 듣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사의 통찰력이나 經眼에 따라 듣는 자의 지혜의 계발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강의하는 자는 교육자가 아닌 導師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란

가르치고 길러주는 역할이 전부이지만 導師는 길잡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을 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즉 자신의 내부를 관조시켜 지혜를 계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워도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한 것이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신념과 사랑을 주고, 지식을 심어 줄 수는 있으나 지혜를 줄 수는 없다. 지혜는 수행자 자신의 문제이다. 스승이 참으로 현명하다면 자기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지혜의 눈을 떠라'라고 引導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지혜의 문제를 대신할 수 없다. 교육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은 깨달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강원에서 지혜 계발을 위한 수행체계가 없다면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출가자의 본분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은 교육장이고 출가자는 수행자가 아닌 피교육생으로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어 강원에 방부를 들여서 공부한다 해도 출가자로써의 정신배양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답식 강의에서는 강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 되는데, 질문한 그 법문을 스스로 듣게 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답을 듣는 것으로 교법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내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며,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게 한다.

또한 강원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전통적 論講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경전, 논서, 어록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으며, 불교적 토양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밖의 것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수평적 강의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智慧의 啓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주제가 법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 문답이 수평적이 되지 못하므로 수행차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곧 문답 속에서 법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송광사 강원의 강의는 이 문답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요 강의는 모두 문답식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간경방법의 생활화로 마음으로 간경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강원의 수행방법 중에 중심되는 것이 바로 看經이다. 간경을 통해 법이 드러나게 되고, 법과 자신의 마음을 상응시켜 깨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관조[觀照]에서 얻어지는데, 간경은 관조[觀照]의 힘을 길러준다.

看經의 看은 現量이다. 따라서 概念화된 相을 인식하거나 現前に 없는 대상을 인식하거나 他를 매개로하여 인식하는 간접인식인 比量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추리 또한 우리들이 구하고자 하는 실재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인식수단의 하나이다.

즉 깨달음이란 이러한 概念相이나 현전에 없는 대상이나 어떤 매개를 통한 知識이 아니라, 직접인식인 現量으로써의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智慧가 바탕이 된다. 직관의 종류로 視覺·聽覺·味覺·觸覺·嗅覺 등의 感官의 感覺과 意識이나 自證知 등이 있으나 모두 미세

한 分別력 또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깨달을 수 있는 수행자의 순수직관은 아니다.

수행자의 직관이란 看經, 看話에서의 看, 또는 반야심경의 照見, 『達磨觀心論』중에 “唯觀心一法 摠攝諸行 名爲省要”의 觀, 觀照등이 해당 된다. 이러한 現量的 直觀은 미세한 판단이나 分別이 없는 수순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現量은 『因明入正理論』에서 “現量謂無分別”이라 하여 分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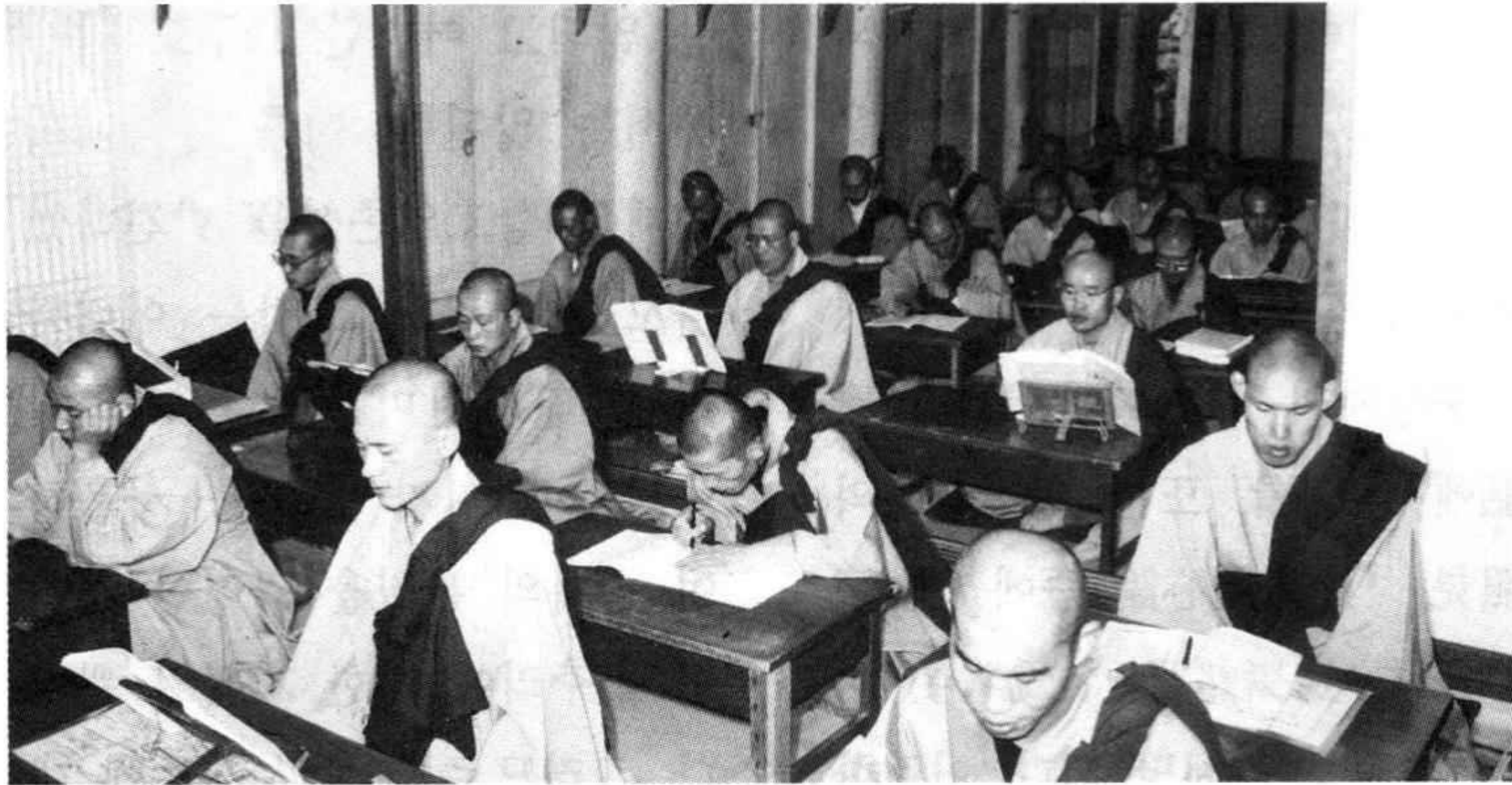
看할 대상인 法은 緣起, 空, 中道, 一心, 佛性, 法界, 一物, 主人公 등으로 일부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不二的 참모습을 표현한 말들로서 無分離 無分別의 세계이다. 곧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에 있다. 오로지 모두 不二的 존재이고 無自性的 空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의 전체와 不二性和 空性 등을 보는데는 무분별 무분리의 성격을 가진 수행자의 현량밖에 없다.

전체와 不二, 空을 보려면 어떠한 전제되는 조건을 두어서

는 않되고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는 않된다. 비록 과학에서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자현미경이나 가속기 등의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존재의 본질을 규명한 것이어서 추리에 의한 지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체험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책상위에 찻잔과 책이 있다고 하자, 찻잔은 책이 아니고 책은 찻잔이 분명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찻잔과 책은 별개로 分離되어 있어 상호의존의 상통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찻잔이라는 사물과 책이라는 사물을 이름붙여서 봄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찻잔이나 책이라는 知識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찻잔이나 책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찻잔이나 책이라는 말 以前の 그 자체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찻잔이나 책이라고 인식한 것은 찻잔이나 책 그 자체와는 별개의 것이어서, 실제의 찻잔이나 책은 부서지거나 찢어지지만 개념 또는 지식으로서의 찻잔이나 책은 부서지거나 찢어지지 않는다. 언어를 통한 찻잔과 책



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도 찻잔이나 책의 부서지고 찢어지는 실체 없는 본질은 알 수 없고 단지 찻잔이나 책의 모양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도구는 배제한다. 자기가 이제껏 쌓아온 학문이나 이념적인 것,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지구의 모든 의존성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을 인류의 知能이라고 단정함에서 볼 수 있듯이 전존재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지식이나 말을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망상에 불과하다. 즉 이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들을 각각 독립된 個體로 구분하고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맞서 있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分別心으로서 妄想일 뿐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친다.

이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외관으로 구별하고 量的 大小로 분별하여 측정하고자하는 지성이야말로 똑똑함이 아니라 어리석음, 곧 미혹에 빠진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진정 극복하여야 할 정신의 혼란상태이므로 이를 無明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본질을 알려면 이러한 개념이나 지식이나 말에 의존하는 인식수단인 추리보다는 바로 본질을 보는 현량적 수행자의 직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실체가 없는 본질은 형상이 없으므로 비량적 추리로서는 분별할 수 없으며 無分別의 현량, 즉 수행자의 직관인 看이나 觀으로 無實體의 본질과 서로 상응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看에 의하여 상응되는 본질을 緣起, 空, 中道, 一心, 佛性, 法界, 一物, 主人公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물론 이 이름도 하나의 개념이고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 명칭들은 어느 물건이나 비물질에도 적용이 되고 상통되기 때문에 본질을 지칭한 말로써 더 이상 다르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찻잔과 책의 예에서 찻잔은 흙과 물과 불과 도공의 생각과 행위의 상호관계에 의한 인연이 모여 생긴 결과물이다.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는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상 그대로 것이며 이것은 상호관계의 연기이므로 有나 無로 결정되지 않는 中道이다. 뿐만 아니라 一心, 佛性, 法界, 一物, 主人公 등 또한 이름은 다를지 모르나 존재의 실상을 포현한 말들이다.

이러한 명칭들은 말과 생각 以前을 표현한 것으로 看을 통해서만이 상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상이 나타나게 하여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여러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강원에서는 看經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간경 방법은 소리를 내어 경을 읽는 것으로, 그 소리를 자신이 다시 들으면서 소리를 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看[觀]하면 分別心[分離心]이 없어지고, 다같이

마음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어우러대중이 하나로 동화되어 간다. 즉 집단 三昧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과 전체가 상호교감이 생겨서 마음이 高揚되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상승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불이나 경전독송이나 염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sup>2)</sup>.

계속 소리를 看[觀]하여 나가게 되면 내용이 함께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에는 소리와 뜻을 함께 관한다.

이쯤 되면 경전 내용의 윤곽과 뜻이 드러나 法의 이치를 동시에 看하게 되는데, 간할 때에 처음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로 경전의 형상이 먼저 눈에 들어오며 자기 입으로 내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게 된다. 다음에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간하는 집중의 힘이 강해져서 형상 너머에 있는 뜻을 보게 된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관하는 집중의 힘이 강하게 되면 경의 뜻에서 법의 이치, 즉 공이나 연기 등의 법이 나타난다. 처음 간할 때 형상만이 눈에 들어오고 공 등의 이치가 보이지 않

는 것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생각의 장벽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看함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던 것이 마음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마음은 그 자체가 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楞嚴經』에서 설하고 있다.

공이나 緣起 등의 法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 눈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생각이 밖으로 투영되어 생각이 대상역할을 함으로써 겉모양만을 보게 된다. 그러나 계속 간하게 되면 눈의 영역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이 看이고 觀照이면서 洞察力이고 바로 般若智慧인 것이다. 따라서 經 내용의 윤곽과 佛法의 이치에 더욱 자유롭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 경지가 지속되면 듣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마음으로 보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듣는 성품이란 형상이 아니다. 형상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듣는 성품은 형상이 아니므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

다. 이 경지에 이르면 경에서 설하는 이치가 마음으로 간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존재는 空과 緣起 등, 法의 性이다. 論書나 祖師語錄도 역시 이 性에 대한 내용으로 性이라 함은 本質, 戒, 緣起, 또는 佛性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觀[看]하는 것은 마음이요, 경은 대상이 되는데, 마음이 눈을 통하여 觀하는 看의 대상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차차로 그 대상인 諸法[존재]의 뜻이나 법의 이치가 드러나면 눈을 통하지 않고 마음 그대로 보는 성품이 작용하게 되어 마음으로 관하는 관과 그 대상인 공이나 연기 등의 性이 相應하게 되며 여기에서 智慧가 啓發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華嚴經』에서 설하기를

“三世所有의 一切諸佛과 一切佛法과 一切衆生과 一切國土와 一切世間과 一切三世와 一切虛空界와 一切法界와 一切言語로 施設된 世界와 一切寂滅涅槃界 등 이와 같은 一切種種의 諸法을내가 마땅히 一念에

2) 자신이 설하는 법이나 독경, 염불, 간경하여 내는 법문을 자신이 듣기 때문에 삼매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華嚴經} {離世間品}에 “聞法人三昧 無量門起定亦復然 示現無窮盡” 라고 하였다. (高麗藏經木版本 80華嚴經卷第59 15幅後面)

相應한 智慧로 모두 알고 모두 깨달으며 모두 보고 모두 증득하며 모두 닦고 모두 끊는다.”<sup>3)</sup> 라고 하였다. 이처럼 만일 一念에 상응되면 지혜가 계발되면서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광사강원의 간경시간은 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관하며, 이를 반복하다가 간경을 끝마칠 때에는 경을 보지 않고, 읽었던 경의 구절을 떠올리는 책없는 간경을 실시한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관했던 경전 구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떠올려 집중적으로 思惟한다. 이때의 사유는 경전 구절에 머물게 하여 다른 생각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전의 속에 담겨 있는 뜻에 따라 여러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경전이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그 메시지가 佛性 또는 空 등의 법이라 한다면 사유상태가 一念으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일어나는 갖가지의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이끌고 이

에 상응하여 집중되는 사유는 고요함과 지혜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경지에서 경전구절과 사유가 상응하게 되면 모든 존재의 性과 相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수행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서 눈으로든 귀로든 五官에 부딪치는 경계들이 생각에 투영된 이미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저 너머의 實相을 現前에서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한시간 간경을 할 경우, 5분정도 짧게 하거나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죽비에 맞추어 다 함께 마음으로 간경을 하게 하는데, 이는 또한 행주좌와 어디서든 경을 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넷째, 매철을 마감하면서 번역시험을 치른다(1년에 4번)**

한철동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출제되는 번역시험은 학인들로 하여금 매시간 강의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만들며, 철을 마감할 때 다시 한번 배웠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단순한 번역시험을 지양하기 위해서 치문의 경우는

난자에 대한 시험과 번역한 부분에 대한 논설을 곁들여 출제하며, 다른 반의 경우도 역시 논설을 곁들이게 함으로써 내용과 악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에는 현재번역서가 나와있지 않는 經·律·論을 選定하여 원전번역과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제출케 하므로써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독자적으로 原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點檢한 후 졸업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안거를 마칠 때 강사스님과 일대일로 法問答을 한다(1년에 두 번)**

여러 강사스님과 직접 법문답을 함으로써 법문답을 통해 자신의 공부 정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제가 끝나기 일주일 전 후해서 3-4일에 걸쳐 진행되는 법문답은 즉석에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석사, 불교 전반에 걸친 수행자로서의 자질 성장 정도, 지난 철 공부의 핵심 파악 정도 등을 강사스님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 학인과 일대일

3) 80華嚴經卷第55 離世間品 제38의 3 “三世所有一切諸佛 一切佛法 一切衆生 一切國土 一切世間 一切三世 一切虛空 界 一切法界 一切言語施設界 一切寂滅涅槃界 如是一切種種諸法 我當以一念相應慧 悉知悉覺 悉見悉證 悉修悉斷” (高麗藏經 木版本 一幅後에서 二幅前)

로 문답을 하는데, 여기에서 학인들은 자신의 공부정도를 반성하고, 견해를 더욱 넓히며, 다음철 공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는다.

**여섯째, 특강의 경우 외래 강사는 스님으로 한정한다.**

자칫 재가자들에게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승가의 아집으로 비취질지도 모르지만 講師를 스님만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승가의 위상확립으로써 戒를 수지하기 전이라면 몰라도<sup>4)</sup> 계를 받은 이후에 재가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승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며, 승가만의 신성성을 잃게 하여 승가조직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律藏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런 일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승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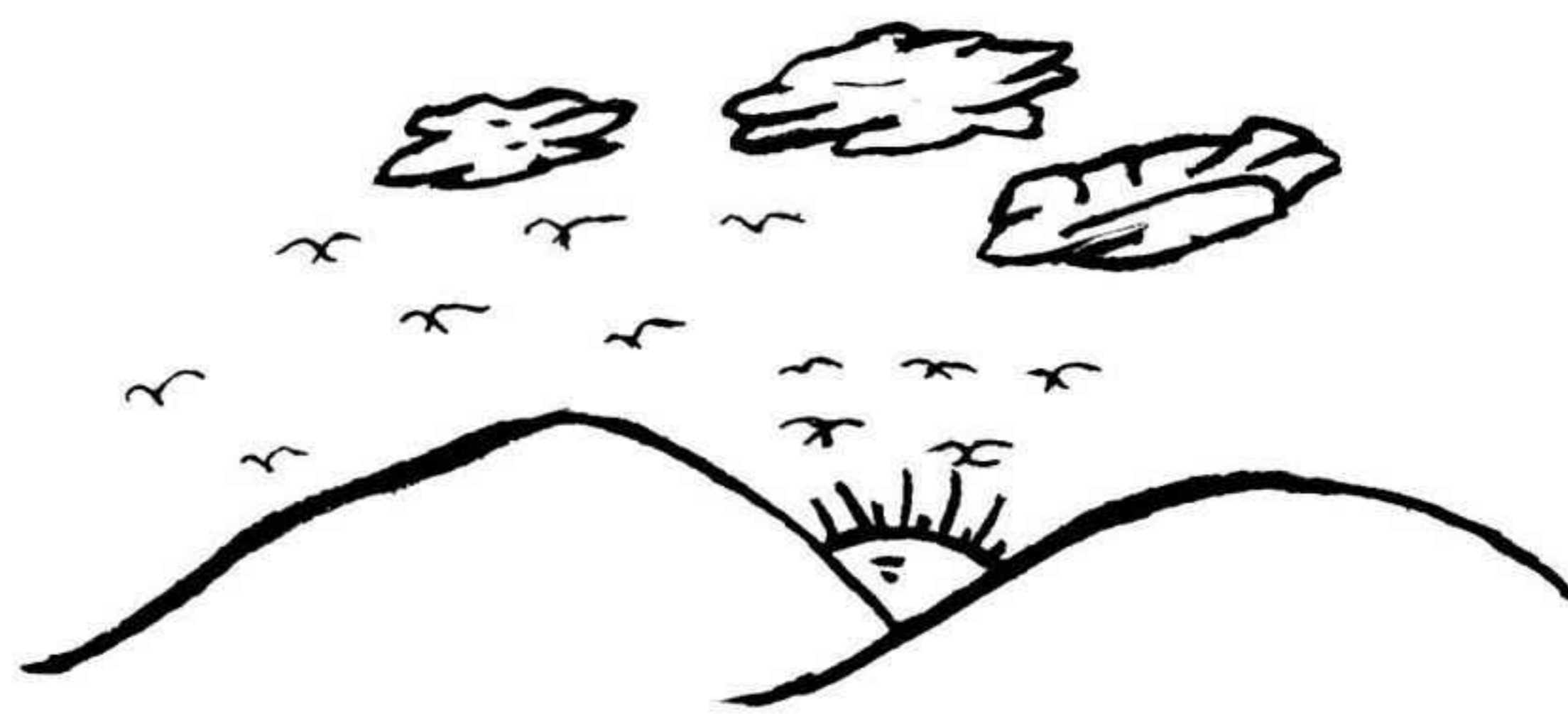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수행 체험이 없는 이야기들은 수행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인들에게 지루함을 줄 뿐, 그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도 우선 순위가 있게 되는데 먼저 수행체험의 정도를 고려하며, 다음으로 학문적 습득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는 강원에서의 강의 또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송광사 강원은 나름대로 전통 강원 고유의 특성을 현대에 맞게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강사이든 학인이든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로 화합하며 정진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강사스님들의 자비와 학인들의 믿고 따르는 어른 공경의 정신이 송광사 강원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음도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4) 『大智度論』卷十三에는 在家者が 沙彌·沙彌尼가 될 때에는 和尚과 아사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이 兩者를 出家의 父母에 비유한다.

5) 特講講師라고 하더라도 스승이다. 재가자를 스승으로 강의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가자의 스승을 阿闍梨라고 하는데 아사리란 제자를 教授하고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 軌範이 될 수 있는 스승을 말한다. 즉 出家하는 순간부터 아사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五分律』卷十六과 『四分律刪繁補闕行事』卷上에 실려있는 것을 근거하면 여기에는 五種아사리가 있다. 즉 ① 出家得度 때에 十戒를 주는 스승으로 十戒아사리인 出家아사리. ② 具足戒를 받을 때에 羯磨를 하는 스승으로 羯磨아사리인 受戒아사리. ③ 구족계를 받을 때에 威儀를 教授하는 스승으로 威儀아사리인 教授아사리. ④ 比丘가 師事하고 起居를 함께 해서 지도를 받는 스승으로 依止아사리(五分律卷十六.卷十七의 受戒法, 四分律卷三十三.卷三十四의 受戒度 중에 受戒者依止師에 관한 것이 상세히 記載되어 있다.) 등의 五種아사리이다.

# 죽림자로



진종(眞宗)/사집

내가 송광사로 편입해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는 일 없이 허둥댄 것 같은 느낌뿐이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나?

송광사의 여름은 어떤지 자못 긴장이 된다. 쌍계사에 있을 때는 시원한 대숲의 바람을 맞으며 차로써 모든 긴장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정말 나처럼 차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리라.

나는 지극한 차 예찬론자이다. 나의 본사인 쌍계사는 차의 시배지, 주산지로 유명하다. 내가 쌍계사로 출가한 이유중의 하나도 차 때문이었다. 매화와 대나무가 유독 많은 쌍계사, 그 곳에서의 차맛을 어디에 비교하겠는가!

옛부터 차의 성품은 군자에 비유되었다. 또한 행다(行茶)의 과정을 수행에 견주어 다도(茶道)란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어쨌든 차가 우리 수행자들에게 주는 이익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스님들이 차를 생활화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흔히 스님들은 녹차와 중국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녹차는 순수한 우리차로서 청다(淸茶)에 속한다. 맛과 향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차이지만 몸을 냉하게 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몸을 덥혀 주는 발효차를 선호하게 된다.

사실 잎차를 마시기 시작한 때는 고려 무신정권 때 이후부터이고 그 전에는 유란차라는 약간의 발효된 차를 갈아서 말차로 마셨다고 한다.

유란차 이전에는 거의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효된 차를 마신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차중에서 우리의 토속차이며 발효차인 '자로차'를 아는 분은 드문 거 같다. 비싼 값에 중국차를 사다 먹으면서 정작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차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로(紫露)란 차 빛이 붉은 저녁 노을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우리나라 다도의 명인 목은 이색의 시조에 '비관통자로(鼻觀通紫露)'란 구절이 있다. 이 자하의 색에 취한 다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색은 차를 잘끓여 마심은 군자의 수행과 같다고 하며 향시 차를 마셨으니 그 차가 바로 자로차(紫露茶)이다. 그러나, 지금 녹차 일변도의 차문화 때문에 이러한 발효차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 다만 화계 일대의 몇몇 제다 회사에서 흥내만 낼 뿐이다.

다행히 내가 아는 스님 가운데 국산 발효차를 제대로 만드는 분이 계신다. 자신도 녹차의 냉기가 맞지 않아 중국차를 마시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맛과 향에 반해 자로차의 예찬론자가 되었고 지금은 비료를 주지 않는 무공해 차밭에서 손수 차 잎을 따다 자신이 직접 법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덕분에 차 마실 기회가 많았는데 정말 차 맛이 일품이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이 차를 맛 볼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우리에게도 좋은 발효차가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 나라 전국 어느 사찰이 경치가 좋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 하지만 쌍계사만큼 차를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곳은 드물 것이다. 도반들이여 방학하면 쌍계사 대숲에서 자로차 한 잔 마셔 보세.

덧붙여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다시(茶詩)를 한 편 적어 본다.

古來賢聖俱愛茶  
 茶如君子性無邪  
 深汲輕軟一試來  
 眞精適和體神開  
 塵穢除盡精氣入  
 大道得成何遠哉



다도의 명인 목은 이색의 시조에 '비관통자로(鼻觀通紫露)'란 구절이 있다. 이 자하의 색에 취한 다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색은 차를 잘끓여 마심은 군자의 수행과 같다고 하며 향시 차를 마셨으니 그 차가 바로 자로차(紫露茶)이다.

# 해로는 거도

지묵(志默) / 송광사스님





해로(海老)는 왕새우의 애칭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염이 나 있고 등이 굽은 까닭으로 '바다 늙은이'란 애칭을 얻은 것입니다.

은거(隱居)는 숨어 지낸다는 뜻인데 왜 왕새우는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왕새우의 성장과정을 살펴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껍질을 한 차례 벗고 나서 새끼새우에서 왕새우로 되는데 이 껍질을 벗는 일은 왕새우의 생애에서 가장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 껍질을 벗는 기간에 나돌아다니다가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어 버리는 날에는 만사가 끝장이기 때문이지요.

껍질을 벗을 때에는 새우의 거동이 불편해서 도망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자기가 숨을 굴을 찾아서 은거할 준비를 해둡니다.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서 껍질을 잘

벗은 새우만이 왕새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존 육년 묵무언(世尊六年 默無言)  
달마 구년 좌부동(達摩九年 坐不動)  
그렇지요.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루시기 전 여섯 해 동안 고행 묵언 하셔서 불교의 씨앗을 뿌리셨고 달마대사가 소림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아홉 해 동안 면벽(面壁) 좌선을 하셔서 선종(禪宗)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껍질을 벗고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은거해 지내는 기간이 꼭 필요한 데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맑혀서 정업(淨業)을 이룬 옛 사람의 미더운 가풍을 왕새우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날마다 이와 같이 사는 이에게는 진정 좋은 날이 아닐까요.

# 화엄일승법제도

연수(然修) 譯 / 대교

雖然 依天親論主 以六相方便 立義分齊 准義道理 隨分可解 若約十句 以弁六相 如下說 今且約印像以明六相 示一乘三乘主伴相成現法分齊

所謂六相者 總相 別相 同相 異相 成相 壞相 總相者根本印 別相者餘屈曲 別依止印 滿彼印故 同相者入印故 所謂曲別而同印故 異相者增相故 所謂第一第二等曲別增安故 成相者略說故 所謂成印故 壞相者廣說故 所謂繁迴屈曲 各各自本來不作故 一切緣生法 無不六相成也 所謂六相者 總相 別相 同相 異相 成相 壞相 總相者根本印 別相者餘屈曲 別依止印 滿彼印故 同相者入印故 所謂曲別而同印故 異相者增相故 所謂第一第二等曲別增安故 成相者略說故 所謂成印故 壞相者廣說故 所謂繁迴屈曲 各各自本來不作故 一切緣生法 無不六相成也

所謂總相者 義當圓教 別相者 義當三乘教 如總相別相成相壞相等 不即不離 不一不二 當在中道 一乘三乘 亦復如是 主伴相成不即不離 不一不二 雖利益衆生 而惟在中道主伴相成 現法如是一乘別教 三乘別教 准義可解 汝所問義 義亦如是 初曲如因 乃至後曲如果如初後不同 而唯在當中 雖因果義別 而唯住自如 依三乘方便教門 故高下不同 依一乘圓教 故有無前後 所以得知 如經說 又一切菩薩 不可思議諸佛法 令入智慧地故 論曰 一切菩薩者 謂住信行地 不可思議諸佛法者 是出世間道品 明者見智得證 說者 於中分別 入者信樂得證 智慧地者 謂十地智 如本分中說 此是根本入 如經又一切菩薩不可思議諸佛法 明說令入智慧地故 此修多羅中 說依根本入有九種入 一者攝入聞慧中攝一切善根故 二者思議入 思慧於一切道品中 智方便故 如經善分別選擇一切佛法高 三者法相入彼彼義中 無量種種智故 如經廣知諸法故 四者教化入隨所四義 名字具足善說法故 如經善說諸法故 五者證入 於一切法平等智 見道時中善清淨故 如經無分別智清淨不離故 菩薩教化衆生 即視自性佛法 是故利他亦名自利 六者不放逸入 於修道時中遠離一切菩薩菩提障故 如經一切魔法不能染故

비록 그러하나 天親論(세친보살의 십지경론)의 趣旨에 의해 六相의 方便으로 立義한 分齊의 의미와 도리에 근거하면 역량에 따라 해석할 수 있으리라.

만약 十句의 면에서 六相<sup>1)</sup>으로 분별하면 아래에서 말한 것과 같다.

지금 우선 印象에 準據하여 육상을 밝혀 一乘과 三乘이 主伴相成[主(依三乘)와 伴(顯一乘)]이 서로 화합하여 완전해짐]하여 現法의 分齊를 나타낸 것이다.

소위 6상이란 總相, 別相, 同相, 異相, 成相, 壞相이다.

總相은 根本印이고, 別相은 나머지 屈曲(10구중 근본입을 뺀것)들이니 別이 印을 의지하여 그 印을 원만케 하기 때문이다.

同相은 印인 연고니 屈曲은 다르나 동일한 같은 印이기 때문이다.

異相은 增長하는 相이니, 제1. 제2등 屈曲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成相은 간략하게 설함이니, 印을 이루기 때문

1)

1. 육상이란 무엇인가?

육상이란 전체와 개체(總·別)가 한 쌍이고 같고 다름(同·異)이 한쌍이고 이루고 무너짐(成·壞)이 세쌍으로서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들이 서로서로 원음 등글하여 걸림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 하나에 다른 다섯이 포함되면서도 육상이 나름대로의 제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法界緣起가 성립한다는 법문이다.

2. 총상과 별상이란 무엇인가?

화엄 5교장에서는 이것을 집(家)에다 비유하여 해설하고 있다. (1)總相은 전체로서의 집이라고 또는 국가라고 한다면 (2)別相은 집의 각 부분적인 기둥, 셋가래, 주초돌, 창문등, 국가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각부장관 국장, 과장 실장, 청장등이다. 총상은 전체적 통일을 말하고 별상이란 부분적인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르킨다. 곧 (하나속에 만덕을 갖춘다)가 총상이고 개체 속에도 개체개체를 갖춘다는 것이 별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축이되어 여럿을 포괄하고 있다는 뜻. 곧 집을 총상으로 한다면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 셋가래, 주초돌, 창문, 기와등이 별상이된다. 차별된 현실세계에서 보면 일체가 별상으로 보이고 통일전체에서 보면 일체가 한꺼번에 총상으로 들어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전체로 보면 총상이고 눈, 귀, 코, 입에 포인트를 맞추어 보면 별상이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등글원융하다고 하는 법문이다.

3. 동상이란 무엇인가?

동상이란 사람으로 말하면 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눈, 코, 귀, 입, 손, 발등이 함께 인체구성에 참가함을 뜻한다. 여러의미가 서로 어긋나거나 틀리지 않아 함께 하나라는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서로 차이는 種種의 物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동상이라 하는 법문이다.

4. 이상이란 무엇인가?

동상에 반해 차별되고 다르게 변하는 것에서 다름이(異)자, 모양(相)자 곧 이상이 된다. 예를 들면 마치 집을 이루는 기둥이나 셋가래 창문등은 각각 그 모양이 다르듯이 그 形類와 작용이 다른 것, 이것이 이상이란 법문이다.

5. 성상이란 무엇인가?

성상은 서로다른 재료들이 각자의 인연과 기능으로 현재의 집을 건설하는데서 붙인 이름이다.

이다.

壞相은 광범하게 설하는 연고니 이른바 繁廻 屈曲하나 각각 그 자체가 본래 따로따로 짓지 않는 까닭이다. 一切의 緣生法은 6相으로 되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소위 총상이란 圓敎에 해당하는 뜻이며 별

상은 三乘敎에 해당되는 뜻이다.

저 총상, 별상, 성상, 괴상등은 不即不離하고 不一不異하여 항상 中道에 있게된다. 일승과 삼승도 또한 이와 같아서 主.伴이 資糧하여 그것이 不即不離하고 不一不異하며 비록 중생을 이 익되게 하지만 오직 中道에 있으며 主伴相成하

6. 괴상이란 무엇인가?

성상과는 달리 기둥은 기둥, 셋가래는 셋가래, 기와는 기와, 주초돌은 주초돌, 창문은 창문이라 서로 고집해서 본래의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면 합칠방도가 없어 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지은 집이라도 각각 제대로 고집하여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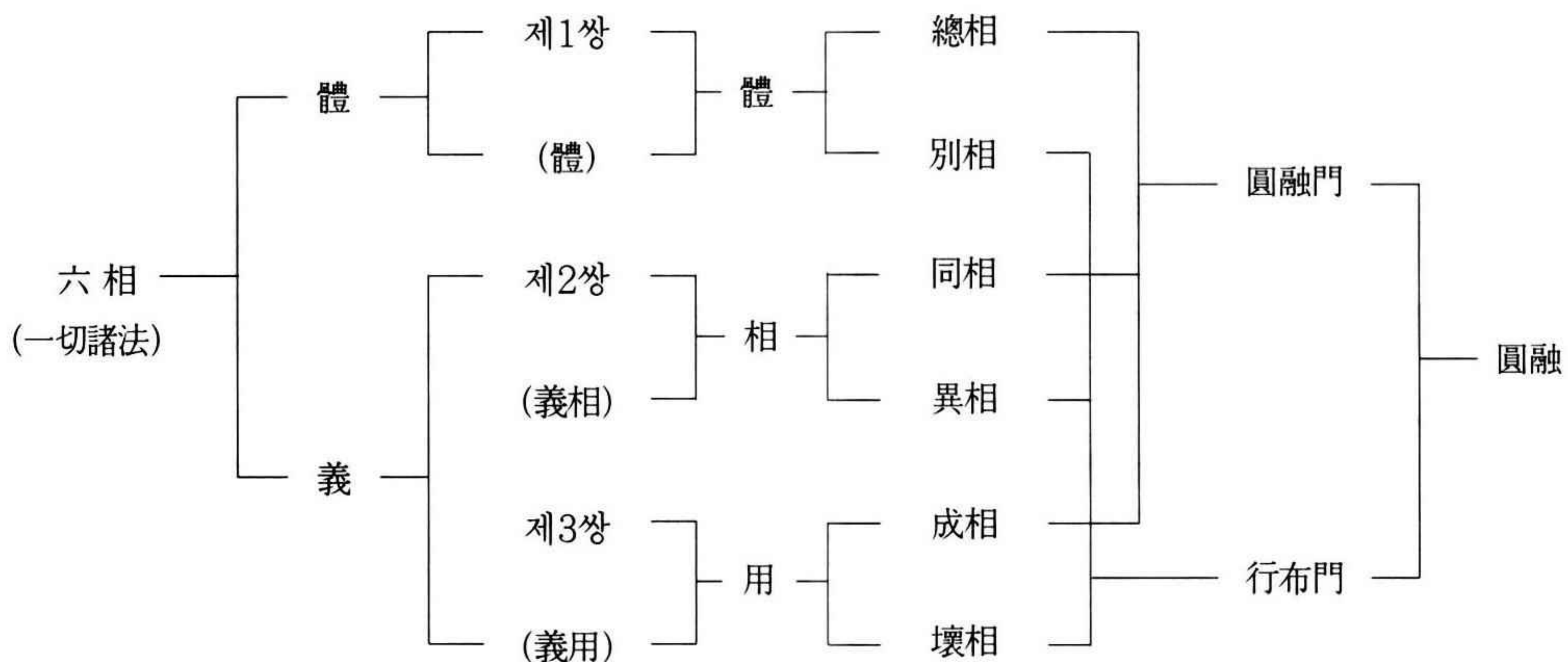
여러뜻이 각각 自法에 住着하여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괴상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제자리 맡은 자리랄까 개체의 입장이랄까 뭐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사태를 보고 처리함이 괴상이란 법문이다.

이렇게 하여 육상 가운데 총상 동상 성상(總·同·成·相)은 모두 같은 시점에서 논의되고 또 별상 이상 괴상(別·異·壞·相)도 공통된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총·별·동·이·성·괴라는 반대개념이나 대립개념으로 사물을 설명하는 것이 육상원융 법문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을 다시 간추려 요약해보면 먼저 十玄門은 모든 법이 無碍함을 제시한 것으로 事事物物이 相即 相入하여 있는 것을 말씀한 법문이고 이 육상등근모양은 육상의 걸림없음을 제시한 것이다.

총과 동과 성은 平等上에서 본것이요 별과 이와 괴는 차별상으로부터 본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평등과 차별의 둘이 원융무애한 것이 사사무애의 妙理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총상을 여이고 별상이 없으며 동상을 여이고 이상이 없으며 성상을 여이고는 괴상이 없는 법이다.

이 육상중에 평등무차별한 것을 원융문이라 이르고 차별된 것을 항포문(行布·行烈뜻)이라 이르는바 이 원융중에 항포가 들어있고 항포중에 원융이 들어 있어서 서로 곧 들고 나서(相即相入) 여기서 事事無碍의 묘한 이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도표하면 다음과 같다.



여 법이 드리남도 이와같다.

一乘別敎와 三乘別敎도 이런 뜻에 准하여 해석할수 있으며, 네가 의심하여 물었던 뜻도 또한 이와같으니, 처음 굴곡은 인이고 나중의 굴곡은 과일이다.

저 처음과 끝이 같지 않으나 오직 中道에 있으며 비록 因果의 의미는 다르나 오직 스스로 如如함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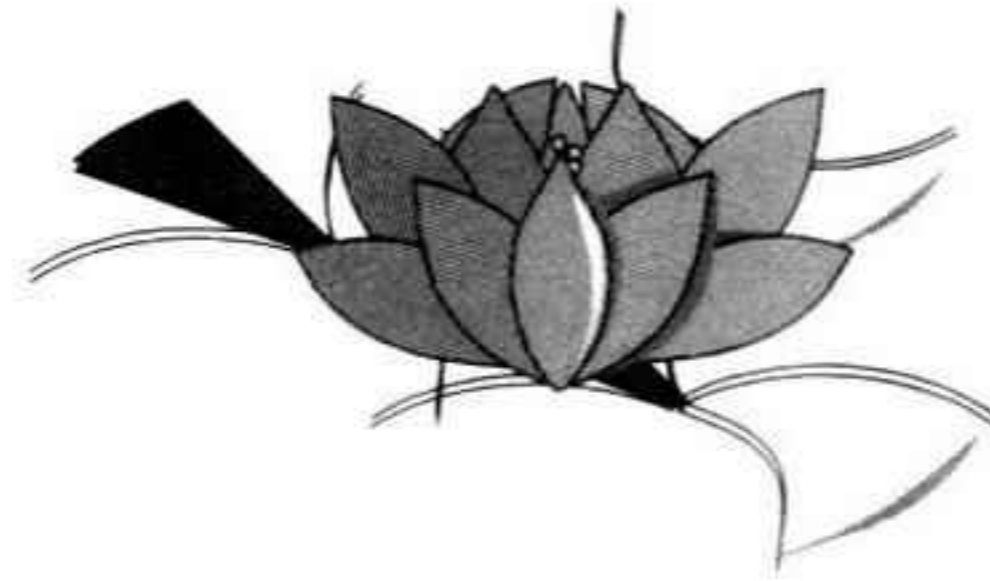
三乘方便敎門에 의지한 까닭에 高下가 같지 않고 一乘圓敎에 의지한 까닭에 前後가 없는 이유를 알게되리라. 이는 經에 또 一切菩薩이 不可思議한 諸佛法을 分明하게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智慧地에 들어가게 한 까닭이라 하였으니, 論하자면

一切菩薩이 信行地에 安住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不可思議한 諸佛法이란 世間の 道品을 벗어나는 것이며,

명확하다는 것은 見智로 證得하는 것이고, 설한다는 것은 그중에서 分別하는 것이며, 들어간다는 것은 信樂으로 證得하는 것이고, 智慧地란 十地智 (근본지)를 말하는 것이니 本分중에 설한 이것이 根本入과 같다.

이는 “經에 또 一切菩薩이 不可思議한 諸佛法을 명확히 설하여(중생으로) 하여금 智慧地에 들어가게 한 까닭이다.”와 같다.



이 수다라중에 根本入(총상)에 의지하여 九種入(별상)이 있다고 설하였는데,

첫 번째는 攝入이니 聞慧(교법을 듣고 얻은 지혜)중에 一切善根을 융섭한 까닭이다.

이는 경에서 일체선근을 섭수한 연고와 같다.

두 번째는 思議入이니 思慧(3혜중의 하나)는 一切道品중에서 一切佛法을 훌륭하게 分別하여 選擇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法相入이다. 저 뜻중에 무량한 갖가지의 지혜인 까닭이니 경에서와 같이 諸法을 널리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敎化入이니 생각하는 바의 뜻에 따라 名字를 具足하여 잘 說法한 까닭이니, 경에서와 같이 諸法을 잘 說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證入이니 一切法의 平等한 지혜로 見道(보살의 초지)에서 매우 청정한 까닭이니 경에서와 같이 分別이 없는 지혜는 淸淨하여(當處를)여의지 않기 때문이다.(主客이 統一된 平等境地) 菩薩이 衆生을 敎化하는 이것이 곧 자연히 佛法을 이루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利他를 또한 自利라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不放逸入이니 修道중에 멀리 떨어진 일체보리장인 까닭이니 경에서와 같이 일체 魔法이 능히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 42장경 중에서

정진(正眞) / 치문

### 〈第十六章〉

佛言,人懷愛欲,不見道者.  
譬如澄水,致手攪之,衆人  
共臨,無有覩其影者.人以  
愛欲交錯,心中濁興,故不  
見道.汝等沙門,當捨愛欲.  
愛欲垢盡,道可見矣.

### 〈第十七章〉

佛言,夫見道者,譬如持炬,  
入冥室中,其冥即滅,而明  
獨存.學道見諦,無明即滅,  
而明常存矣.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애욕을 품으면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저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함께 비출지라도 그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욕에 얽히면 마음이 흐려지므로 도를 볼 수 없다.

너희들 사문들은 마땅히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의 때가 다하면 도를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본다는 것은 마치 햇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 가면 어둠은 곧 사라지고 오직 밝음만이 있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서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사라지고 밝음만이 항상 있을 것이다.

〈第十八章〉

佛言, 吾法念無念念, 行無行行, 言無言言, 修無修修. 會者近爾, 迷者遠乎. 言語道斷, 非物所拘. 差之毫釐, 失之須臾.

〈第十九章〉

佛言. 觀天地, 念非常. 觀世界, 念非常. 觀靈覺, 卽菩提. 如是知識, 得道疾矣.

〈第二十章〉

佛言. 當念身中四大, 各自有名, 都無我者. 我既都無, 其如幻耳.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며, 행하되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하되 말함이 없이 말하며, 닦되 닦음이 없이 닦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가까워 지고 모르는 사람은 멀어질 것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떨끝만큼 어기어도 잠깐 사이에 잃어버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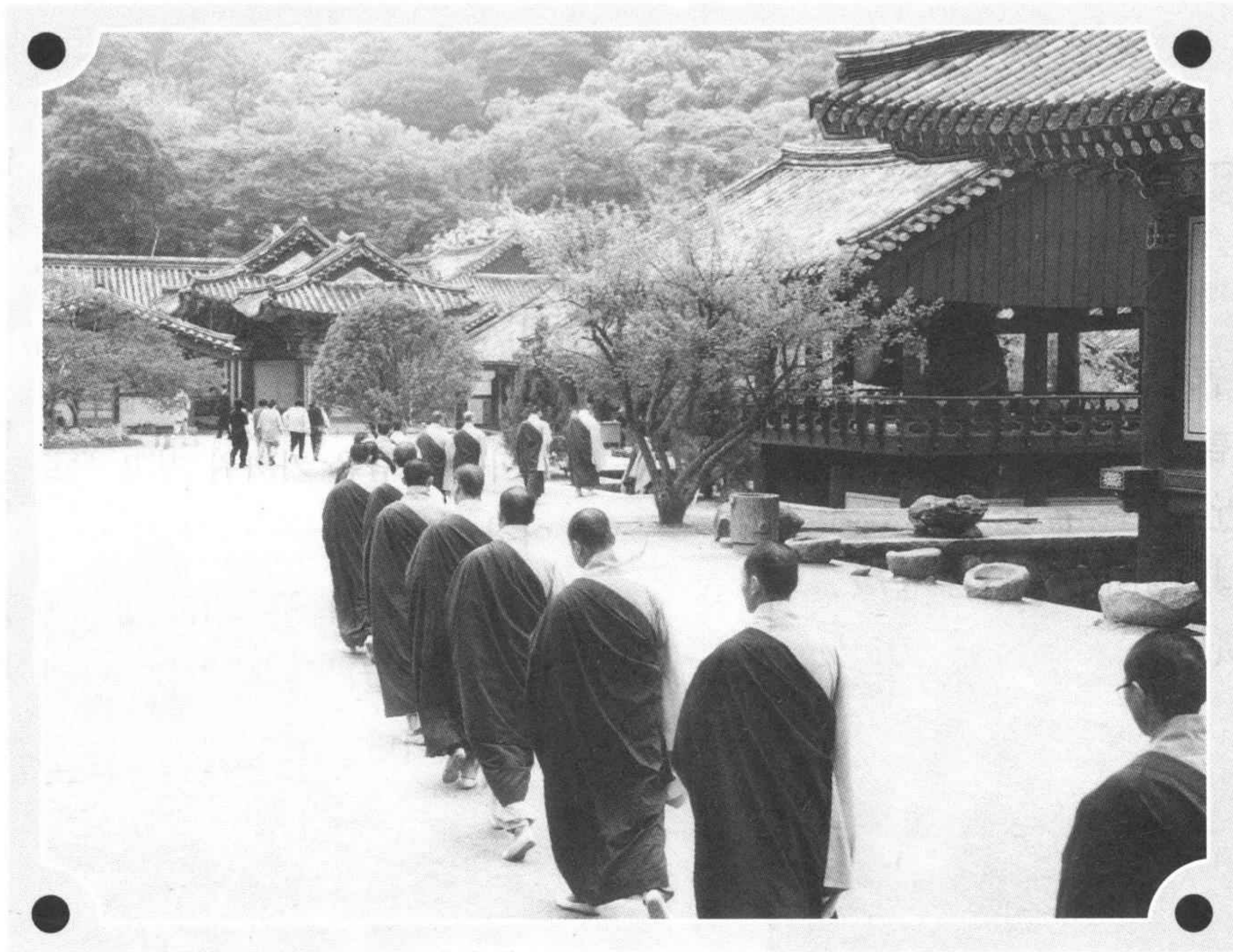
천지를 관(觀)하여 항상하지 아니함을 생각하고, 세계를 관(觀)하여 항상하지 아니함을 생각하고, 신령스럽게 깨어 있는 마음이 곧 보리임을 관(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알면 도를 빨리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 가운데 사대는 제각기 이름은 있으나 어디에도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이미 어디에도 없고 그것은 마치 환(幻)과 같을 뿐이다.



## 송광사강원 발전기금 적립 상황

### @ 정혜사편집실 기금

이월금액 : 20,655,760원  
 수입액 : 3,345,020원  
 지출액 : 일천만원(북한돕기 기금)  
 잔액 : 14,000,780원

### @ 범망경판매 수입금

이월액 : 28,484,050원  
 수입액 : 6,899,000원  
 지출액 : 0원  
 잔액 : 35,383,050원  
 • 현 적립 총액: 49,383,830원

### \*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광주일대에서 모금한 북한돕기 탁발금 1,371,500원과 강원스님들의 보시금 477,000원을 합한 금액 1,848,500원은 전승련을 통해 전달했으며, 강원기금 중 일천만원의 금액은 종단협의회 북한돕기 본부에 직접 기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저희 강원에서도 꾸준히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 최선을 다하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천인이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쭙었다.

“비구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고요히 범행을 닦고, 하루에 한 끼니만 먹거늘 무슨 까닭으로 얼굴이 그리 밝은가요?”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반겨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판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생각을 치달리게 하고

과거를 돌아보아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 태우는 것이니라.”

잡아함경 제36;995경:<2-260하>

## 편집후기

장마비 덕분에 바닥을 밀돌던 주암호의 수위가 올랐습니다.

대중 스님들 덕분에 정혜사 14호도 속이 가득 찼습니다.

장마가 끝났는지 수은주가 치솟습니다.

언제나 능력부족을 느끼면서도 놓아버릴 수 없는 소임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혜사가 탄생하는 오늘.

정혜사에 대한 애정도 수은주처럼 치솟았으면 합니다.

### ☺ 표지 이야기

삭발일 전날은 송광사 전대중이 참여하는 울력이 있는 날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에는 화엄전 뒷편에 있는 밭에서 감자도 캐고 밭독의 풀도 베었습니다.

### 13호의 오자를 바로 잡습니다

- 29쪽4행 : '일천구백일십구년' 에서, 일십을 '육십' 으로.
- 뒷표지 : 華嚴展에서 展을 '殿' 으로.

##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정혜사' 14호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무이스님, 일선스님, 진원스님, 심분남, 이후관, 류인석, 원광유치원원장, 허명옥, 진여화, 손정남, 김정자, 남선숙, 신정애, 신안자, 박화신, 채형언, 김갑숙, 무심행보살, 홍원표, 강정윤, 도서출판 보림

- 익명의 보살님께서 발송용 우표(8만원상당)를 보내주셨습니다.

### ◀ '정혜사' 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 현장스님 — 50만원

##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강원 학인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정혜사' 는 저희 강원 내에서 원고에서 편집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틈틈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이를 고집합니다.

정혜사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경우 꼭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정혜사 편집실

우. 541-930 ☎ (0661) 755-5300, 5302

2541년 송광사강원

#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1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사미율의 반 .....	신입 〇〇 명
	치문반 .....	편입 〇 명
	사집반 .....	편입 〇 명
	사교반 .....	편입 〇 명

자 격	사미율의반 : 사미계 수지자
	치문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집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교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	2부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적사본 .....	1부
	승려증사본 .....	1부
	수료증(편입생) .....	1부
	사진 (3 × 4) .....	3매
	방부금 .....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불기2541년 9월 1일 ~ 11월 9일 (양력)

문 의 처 : (0661) 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산사(山寺)의 새벽저녁 언제고 종이 우네  
해탈에 몸부림만 풀리라고 울리는가  
명리(名利)에 해매는 꿈도 일깨운가 하노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鐘鼓樓 1978년에 중건되었다.